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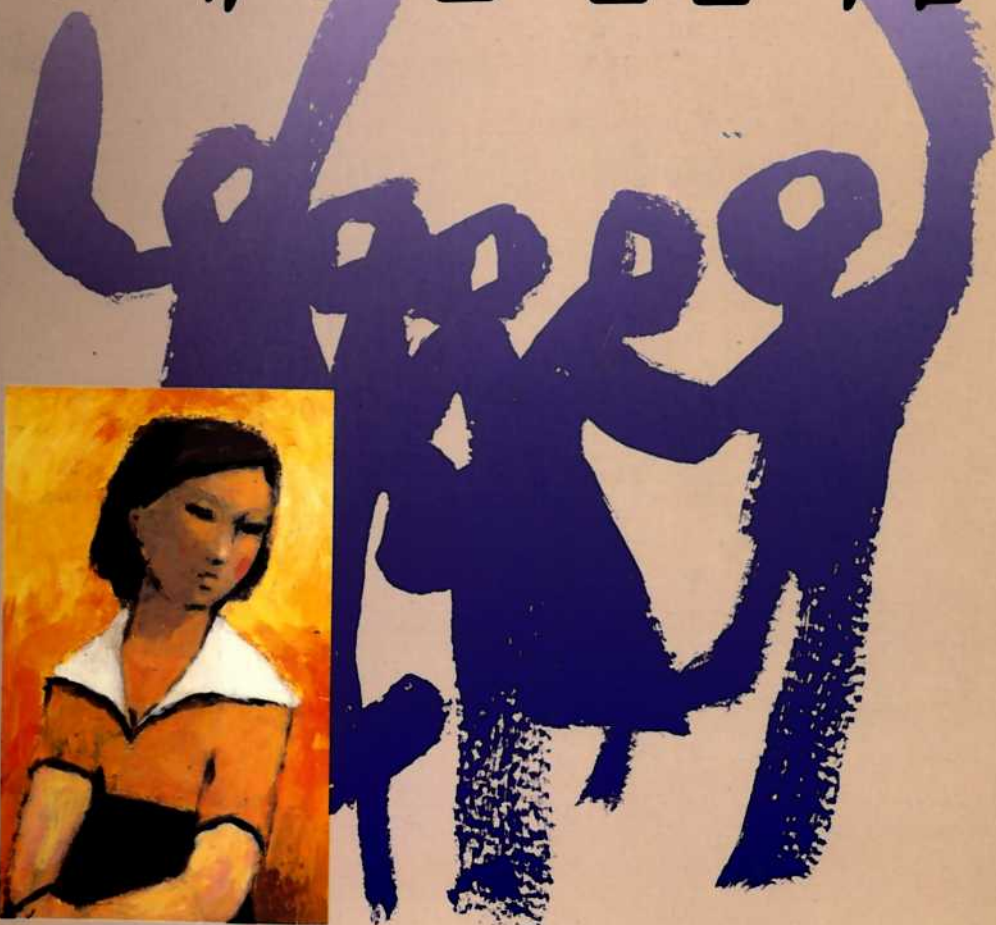
김수경 열사 추모집

저 벌판 가득
고개 드는 들풀처럼

교육 민주화를 위해 산화한

김수경 열사 추모집

저 벌판 가득 고개 드는 들풀처럼



김수경 열사 추모 사업회



김수경 열사

1972년, 부부교사인 부모의 2녀 1남 중 차녀로 태어났으며 카톨릭 신도였다. “모든 일에 있어 솔선 수범하여 근면 성실하고 명랑 쾌활하며 책임감이 강했”을 뿐 아니라, “무척 책임감이 강하고 남의 고민을 같이 아파해 주며, 자기 고민을 드러내지 않는 인간미가 풍부하고 여유가 있는 넉넉한 학생”이었다.

고2 때(89년) 반장을 지냈으며, 고3 때는 학생회 총무로 학생회를 이끌었다.

김수경 열사가

살아온 자취



◀ 6 세 때 동생이랑 사촌과

5학년 가을운동회 때 단짝이던 수영이와 ▶



◀ (언니와 할머니와)
국민학교 졸업식



▶ 중 1 소풍 때 (앞줄 맨 오른쪽)



◀ 영세 받던 날 (88. 7. 16)
오빠와



▶ 여름 산간학교 (88. 7. 28)
앞줄 오른쪽에서 두번째





▲ 수학여행 때 담임 선생님과



▲ 1조 콩가루 화이팅! —수학여행 중 방안에서, 맨 중앙

참교육 민주교정에 돌아오라
권두화보(II) 열사의 낮이여



▲ 영구차가 나간 뒤 닫힌 교문을 잡고 오열하는 학생들



▲ 장례식 때 학교를 빠져나온 영구차 앞에서 오열하는 학생과 저지하는 교사들



◀ 위령제 (90. 6. 9)



▶ 어제는 학과 친구들



◀ 위령제의 한 장면



▲ 전국의 해직교사와 학생들이 모인 추모결의대회('90. 6. 24)



▲ 진혼곡



▲ 추모 결의대회 때 교내행진



▲ 북문으로 나가려다 경찰의 최루탄에 저지 당하고(경북대 도서관 앞)

교육 민주화를 위해 산화한

김수경 열사 추모집

저 들판 가득 고개 드는 들풀처럼

드림

김수경 열사 추모사업회



친구에게

P

우리에게는 이기과정쟁 단허진 교실과 반쫓가리 교과서
우리에게는 억압과 굴종 참교육 참세상의 뜨거운것도 언
계 나무 거운 의사술에뭉여 무참히 깃발하고 억눌런 다네
늘 우 리는어 품에간혀 늘 우 리는사 술 에뭉 여
늘 우 리는우리 권리우리자유를 빼앗겨왔다 - 네
허나 친구여 이젠 더 이상 - 더이 상 잃 을 순 없네
이젠 친구여 우리하나가되어 - 이어 품을갈라 야 하네
우리는 이땅을 쫓이지코나아갈 - 새날을 여는 힘찬일꾼들
우리는 어떠한 탄압에도굴하지않 고힘찬 건진해 아하네
우 리들 참 교육 쟁 취할 그날 가 지
우 리들 참 세상 해 방의 그날 까 지

〈91년 추모제에서 불러진
김수경 추모곡입니다〉

교육 민주화를 위하여 산화한
김수경 열사의 영전에 이 책을 바칩니다

저 들판 가득 고개 드는 들풀처럼

- 권두화보 (I) 김수경 열사가 살아온 자취
- 권두화보 (II) 참교육 민주교정에 돌아오라 열사의 넋이여

- 발간사
추모집을 내면서 / 김수경 열사 추모사업회 준비위원장 최진열 · 14
- 추모사
다시는 너를 외롭게 하지 않으리 / 전교조 위원장 정해숙 · 17
수경이를 추모하며 / 전교조 대구지부장 박지극 · 21
- 서시
나의 스승, 수경아 / 백정민 · 24

제1부 / 참교육 참세상에서 다시 살고 싶어라

- 김수경 열사 유서 · 38
- 김수경 열사 편지글 모음 · 43

제2부 / 그대 가고 없는 빈 자리에 우리는 남아

- 시
우리는 너를 이대로 보낼 수 없다 외1편 / 배창환 · 54
약속 / 백정민 · 59
추모 외2편 / 김정성 · 61
- 산문
지금은 우리가 서로의 상처를 확인하는 때 / 최진열 · 72
수경이를 생각하며 / 최미향 · 75
수경이 앞에 죄인된 모든 교사에게 / 전교조 광주지부 · 78
수경아! 항상 난 너를 생각하고 사랑한다 / 김숙경 · 82
우리의 친구 수경이 / 김명은 · 85
되살아온 수경이를 위해 / 장미정 · 87
다시 수경이를 그리며 / 김효선 · 90
사랑만큼이나 큰 분노로 일어설 때 / 김정성 · 92
- 단편소설
무서운 외출(外出) / 정만진 · 96
- 공트
어떤 소문 / 배창환 · 111

제3부 / 마침내 저 들판 가득 고개 드는 들풀처럼

- 경과 보고 / 고 김수경 학생 특별대책위원회 · 116
- 고 김수경 학생 투신 진상 보고 / 진상 조사단(단장 박현서 한양대 교수) · 121
- 김수경 학생의 죽음이 던지는 충격과 의미 / 전교조 학사국 · 130
- 대구지역 고등학생 글 모음(I)
친구들의 빈 자리를 우리 함께 채워야 할 때 · 134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 135
선생님 사랑해요 · 136
너는 운동권이야 · 138
전진하는 고등학생 · 140
친구야 세상이 희망차 보인다 · 141
- 대구지역 고등학생 글 모음(II)
학생인권에 관하여 / 윤영구 · 143
〈탄압사례〉
우리의 노력만이 해결의 가장 큰 힘 · 147
이년이 학교 말아 먹을 빨갱이년 아냐? · 148
예비 자퇴서를 써라 · 152

제4부 / 김수경 열사 산화 관련 성명서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156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 158
- 경화여중고 해직교사 일동 · 161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 163
-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 165 / 경화여자고등학교 총학생회 · 167
- 대구지역 5개 대학 동문연합 건설준비위원회 · 169
- 참교육을 열망하고 후배의 죽음을 애도하는 졸업생 일동 · 171
- 서울지역 경화 동문회 · 173
- 수경이의 죽음에 분노하는 경상고등학교 학생들 · 175

추모집을 내면서

최진열

전 경화여고 교사·추모사업회 준비위원장

수경이가 간 지 벌써 3년이 되었다. 흐르는 세월을 누가 막으랴마는 참으로 흐르는 세월은 빠르고 살아남은 우리는 부끄럽기 짝이 없다. 수경이의 뜻을 이어받아 참교육을 이 땅 모든 교실에 실현하자던 우리 교사들의 결의와, 학교의 진정한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쟁취하여 인간교육을 받을 수 있는 터전을 만들려던 학생들의 민주 학생회 쟁취 결의가 뜨겁게 울려나오던 그날, 우리는 수경이를 강물 위로 띄워보냈다.

그 동안 세상도 많이 달라져 가는 듯하지만 아직도 참교육이 탄압을 받지 않고, 아이들이 진정 인간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날은 요원하다. 자주적인 학생회의 건설도 전면적으로 쟁취되기에는 아직도 우리의 힘이 너무 부족하다. 수경이가 죽고 광주에서는 이 땅의 비인간적인 교육현실을 고발하면서 철수가 분신하였으며, 아이들은 조금씩 주인이 되어가고 있다.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노력—바로 그것이 아이들의 가슴 깊숙히 자리 잡아가는 것이야말로 이 땅의 장래의 주인이 진정한 역사의 주인으로 거듭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수경이의 죽음은 실로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던져 주었으며, 우리에게 커다란 채찍으로 우리의 앞길을 비추었다. 학생들에게 진 사랑의 빛을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을까. 그는 죽음으로 가는 순간에도 참교육의 지지자로 당당하게 자신의 의지를 밝혔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수경이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다시 이 땅 위에 살려내는 일이다. 수경이를 살려내는

일,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민족·민주·인간화교육을 뿌리박아 가는 일이다. 그리고 학생들은 자신의 권리를 자주적인 학생회 속에서 찾아감으로써 실질적으로 참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한다면 무엇으로 수경이를 다시 불러낼 수 있겠는가.

전교조는 수경이 같은 학생들 앞에 우리 교사들이 떳떳한 인격체로 나란히 서기 위해 만들었으며, 그들의 눈빛이 전교조를 지키는데 커다란 힘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처럼 튼튼한 기반 위에 이 나라의 장래를 지키는 파수꾼으로 우뚝 서 있을 수 있게 된 것도 학생들의 격려와 지지에 힘 입은 것이다.

우리는 수경이를 이제 역사 속에 자리매김할 때가 되었다. 그냥 친구로서의 수경이, 제자로서의 수경이뿐 아니라 우리 교육운동사, 학생운동사에서 그의 자리를 찾아 주어야 한다. 그것은 수경이를 오늘뿐 아니라 살아 있는 민족의 산 역사로 남은 그의 삶의 뒤편을 되찾아 주는 일이다. 수경이는 그의 죽음으로 비극적인 이 나라의 교육현실을 고발하고 저항의 표시로 산화해 갔다. 그가 선 자리는 우리가 가야 할 앞길을 열어 준 열사의 자리임을 3년이 지난 지금 다시금 확인한다. 나이 어린 학생이라 항상 어린애로 취급하려는 발상은 학생들을 그냥 미성년으로만 바라보는 권위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잘못된 것이다. 유관순 열사는 열여섯 살 때 세상을 떠났어도 민족해방운동에 몸을 바쳤

으므로 열사가 되었고, 이완용은 설사 100살을 살았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매국노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김수경 열사의 넋을 기리면서도 다시는 우리 제자들에게 이런 죽음을 안겨 줄 수 없음을 이미 3년 전, 그가 죽음의 길을 갔을 때 우리가 결의한 그대로이다. 다시는 학생들이 우리 못난 교사들 대신에 피를 흘리게 할 수 없다. 우리가 진작에 교육민주화를 이루어 학생들이 참교육을 받게 할 수 있었더라면 오늘의 「김수경 열사 추모사업회」같은 것은 생겨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두고두고 애통해 하는 바이다.

이 글을 읽으면서 그 동안 우리가 너무 게을렀다는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3년이 다 된 지금에 와서 추모집 하나를 내는 것도 그러려니와, 그 내용이 빈약하기 짝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1주기, 2주기 때 그의 뜻을 이어 받은 학생들이 그 뜻을 기리면서 실천해온 중에 써 온 글들이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매워 주게 되어 추모집으로 만들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 이 추모집은 수경이와 그의 벗들의 것이다. 그리고 살아 있는 우리들, 살아서 이 땅의 참교육 실현과 민주화를 이루고 자주적인 통일을 이루어가려는 모든 분들의 것이다.

다시 열사의 영전에 명복을 빈다.

1993년 3주기에

□ 추모사

다시는 너를 외롭게 하지 않으리

—김수경 열사 3주기 추모에 붙여

정 해 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간혹 학생들의 장래 희망을 묻다가 자기 희망이 '문교부 장관'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교부 장관이라는 희망은 정치가나 교수, 의사와는 희망 동기가 색다릅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에 의해서 아이들의 의식에 덧입혀진 희망 직업이나, 자기 나름대로 자기 능력을 성취해 보겠다는 여타의 희망과 달리 문교부 장관이라는 아이들의 희망은 그들 자신이 몸 담고 있는 학교 현실의 부조리함에 대해 아이들이 구조적으로 느끼고 있음을 반영하는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문교부 장관이라는 희망사항을 듣노라면 교사인 나 자신이 무척이나 부끄러워지고 맙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교육현실을 걱정하게 하는 그런 교육의 한 담당자가 나 자신인 것을 어떻게 부끄럼없이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제자 수경이도 문교부 장관을 장래 희망이라고 적은, 이 땅의 교육현실을 너무도 안타까와 하며 몸부림을 친 학생이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학교가 정신을 차릴 것이다."라고 평소 이야기한 수경이, 도대체 학생에게 '문교부 장관'과 '죽음'을 생각나게 하는 교육이 진정 교육이던가요?

교육 아닌 교육의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보다도 학생입니다. 그러기에 의식성이 높은 학생은 교육의 모순을 가장 구체적으로 꿰뚫어 봅니다. "로봇트 교육을 더이상 받을 수 없다."는 김철

수 학생의 절규는 기만에 길들여진 자가 진실을 발견할 때의 섬뜩한 고통으로 우리의 가슴 한가운데를 뚫고 지나갑니다.

우리 교사대중의 빛나는 단결투쟁의 결실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러한 학생들의 고통과 절규를 정면으로 직시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생겨났습니다. 반민중적 사회현실과 이런 현실의 부속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반인간적 교육현실은 학생들의 삶에 대한 순수한 꿈과 인간에 대한 신뢰·애정을 억압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이러한 교육현실은 우리 교사들의 참교육에 대한 진지한 노력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수경이가 우리 곁을 떠난 지 어느덧 3년이 되어가는 지금에, 전교조는 생계의 압박에 굴하지 않은 해직교사와 해직의 위협에 당당히 맞섰던 현장교사의 일치된 단결로 조직을 건강하게 지켜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잊어서는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참교육하는 전교조를 위해, 자신들 스스로 참교육을 실현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전교조 조직결성과 사수과정에 동참했으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됩니다.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징계를 받았으며,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학교로부터 쫓겨났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학생들의 고통에 충분히 함께 하지 못하였고, 그들의 의논상대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수경이의 고민에 좀더 함께 하는 '우리'가 될 수 있었다면 수경이가

우리 곁을 그렇게 쉽게 떠났을까요?

참교육은 결코 교사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에게 참교육은 진정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수경이를 다시 죽이지 않으려면 우리 교사들이 수경이의 절규를 생존권이 달린 문제로 이해할 때 가능할 것입니다. 참교육이 학생들에게 생존권적 문제라면 학생들이 스스로 몸부림치며 절규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표현을 우리는 정말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또 그러한 목소리아말로 학생집단이 스스로 자신의 생존권을 지키는 유력한 방도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 주어진 역할은 그들의 그러한 목소리를 외롭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합법화와 복직이라는 대명제 아래 우리 자신이 감당해야 할 중요한 책무를 유보해 오거나 개인적 실천으로 방치한 바 없지 않았습니까. 이제야말로 전교조가 '학생을 위한 전교조'로 나설 것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단순한 교사집단 내부의 압력단체로 그칠 것이냐, 아니면 진정 학생들의 생존권을 지키는 조직이 될 것인가 판가름이 나게 되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세월은 흘러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전교조 교사가 복직된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현실은 동면의 겨울일 뿐입니다. 그들에게 '전교조'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갈습니까? 우리들의 해빙은 아이들의 인권이나 생존권에도 해빙으로

다가가져야 합니다. 아이들의 진실이 외마디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단절, 우리의 아이들에 대한 사랑, 참 스승을 갈망하는 아이들의 눈물마른 기다림, 이제 이러한 건우 직녀 같은 우리들의 사랑에 전교조는 진정 튼튼한 만남의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열매 맺읍시다. 교사까지만의 민주화가 아닌 학생들에게도 민주적 교육을 성취하는 교육공동체로 학교를 변화시켜 나갑시다. 트라이 내의를 선생님께 선물하고 “선생님, 넉넉하십니까?”라고 물어 보는 수경이의 환한 웃음이 우리의 모든 학교에도 넉넉하게 퍼져나가도록 합시다. 학생이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교육의 중심원리가 되고, 학생자치활동이 아이들의 가장 중요한 배움터로堂堂하게 인정될 그때에 수경이는 진정 환한 웃음으로 우리 가슴에 묻혀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자 수경이!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는 너를 외롭지 않게 하리라.

수경이를 추모하며

박 지 극

전교조 대구지부장

6월의 하늘은 3년 전이나 다름없이 푸르기만 한데, 꽃다운 나이에 숨겨간 수경이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구나. 너의 흔적을 추모집에서 뒤적이다. 깜빡 잊어버릴 뻔 했던 참교육의 등불을 다시 켜 드는 심정으로, 추모의 마음을 되새긴다.

누가 너를 죽음으로 몰았더라 말이나, 누가 너를 삶의 벼랑 끝으로 밀었더라 말이나, 너는 지금 가 버려서 우리 곁에 없지만 내가 말없다는 이유만으로는 결코 잊혀질 수 없는 너의 숭고한 희생에 다시 한 번 모여 고개 숙인다. 너는 비록 이승을 떠났지만, 내가 남긴 발자국은 너무나 크고, 그 빛은 너무나 밝아서 우리가 네 뒤를 이어가는 이정표가 되고 있단다.

네가 걸어간 길은 우리가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너희가 가는 길을 밝혀 주었어야 했던 그런 길이였다. 참교육의 깃발을 들고 일어선 너의 옛 스승들이 내게는 커다란 힘이 되고 빛이 되었을 거라는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내가 남긴 모든 글들이 그랬고, 그 무렵 참교육의 지지자로서 깨끗한 영혼을 일으켜 온 너의 삶이 모두 그러하니까.

그러나 수경아, 그 길은 고난의 길이요, 기나긴 고통의 길이였지. 그리고 네가 짊어지고 나가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무거운 짐이었지. 그런데도 너는 잘 참고 기다릴 줄도 아는 넉넉한 학생이었고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좌절하지 않는 용기 있는 학생이었지. 그리고 교단을 떠나야 했던 너의 옛 스승에 대한 쓰라린 상처가 조금씩 세월의 비바람에 아물어갈 무렵에도

너는 그분들의 참뜻을 결코 잊지 않고 네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을 줄 아는 사려 깊은 학생이었지.

그래, 우리가 이 억압적인 교육풍토에서, 교사에게는 생명인 교단마저 빼앗겨야 하는 댓가를 치뤄가면서 하려고 한 참교육은 곧 학생들이 스스로 참교육을 받을 권리를 되찾는 일과 하나라는 것을 너는 이미 알고 있었지. 그리하여 학생회를 올바르게 세우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 섰고, 또 학생회장 선거 때도 어른들이 감히 하지 못했던 후보의 양보를 실천하면서 학생회 총무로 '내려 설' 줄도 알았지. 그런 의미에서 너야말로 진정한 민주교육, 민주 학생회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몸소 보여 준 선구자라 할 수 있으리라.

수경아,

너를 죽음으로부터 지켜내지 못한 것은 모두 우리가 못한 탓이다. 우리가 좀 더 단결하여 너를 지켜내고 참교육을 진작에 뿌리내렸더라면, 너의 죽음은 없었을 것이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산 자의 부끄러움으로 너의 삶을 가슴 가슴마다에 부활시키려고 한다. 너를 이 땅 위에 반드시 부활시켜야 한다. 아니, 이미 우리 모두의 가슴에 너는 살아 움직이고 있다. 너의 죽음이 왜곡되지 않도록 간절히 소망하면서도 남은 자들이 마음 아파할 것까지도 염려하면서 끝끝내 떠나지 않으면 안되었던 너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 사랑하는 부모님, 친구들,

선생님 모두 두고 떠난 심정이야 오죽하였으랴마는 너의 죽음, 너의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산 자들의 몫이 아니겠느냐.

6월 하늘은 매년 돌아오지만 돌아올 수 없는 너의 영혼이나마 애타게 불러 본다. 그리고 또다른 수경이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참교육의 등불을 밝힌 채로 영원히 지켜내리라. 그렇다, 네가 마지막으로 절규했던 대로 네가 전교조를 지지했던 것은 결코 죄가 아니다. 네가 참교육을 열망한 것도 결코 죄가 아니다. 그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전교조의 합법화를 이루고 학교마다 자주적인 학생회를 건설하여 이 땅의 모든 교단이 참교육의 꽃이 활짝 피고 민주교육의 터전으로 만들어서 증명하는 일, 이것이 오늘, 너를 추모하며 아픈 가슴 달래는 살아 남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리라.

수경아! 너는 이미 역사 속의 작은 별이 되었다. 우리가 약해지고 외로와질 때 언제나 우리를 나약함으로부터 지켜 줄 반짝이는 별이.

우리 모두 오늘 추모의 마음을 새기는 이 자리에서 맹세하노니, 참교육·참사랑이 넘치는 학교를 만들어 너의 영혼이 영원한 안식에 들게 하리라. 이제 모든 걱정들을 버리고 우리 산 자들의 몫으로 남겨 주고 지켜 봐 주기를 바란다.

아, 애닦구나. 꽃다운 수경아!

나의 스승, 수경아

백 정 민
경화여고 '90년 졸업

그래,
4년이 지났다. 어느새……

유난스레 비가 내리던 그날
울먹이며 내밀어 주던 유인물엔
하얗게 웃는 너의 얼굴
그 위엔
'고 김수경 학생 위령제'가
뿌옇게 흐려 있었지.

어지럽이 몰려오던 거리
'아니야, 이럴리가 없어. 수경이가 죽다니…….'
아직도 지워지지 않은 검붉은 너의 흔적.
부르르 부르르 시멘트 바닥 위에 몸을 떨고 있었다.

짧은 컷트머리에 활짝 벌어진 하얀 치아가
유난히 옛돼 보이는 너의 사진이
타들어가는 관 위에 펄펄 펄럭이며
누렇게 재가 될 때
실신한 네 친구의 어깨를 잡고
넋을 잃은 선생님의 슬픈 손을 잡고

터지는 울음을 참을 길이 없었다.

그러나, 한쪽에선 널 두고 흥정하기 시작했다.
"내 죽음이 왜곡되지 말았으면 좋겠다."던
너의 유서는 값싸게 구겨졌다. 그들은
정신병자라 했다. 심지어
죽음을 동경하고 자살경험도 몇 차례 있던 성격파탄자로
내몰았다.
웃기도 울기도 참 잘했던 정 많은 장난꾸러기.
욕심이 많아서, 너무 꿈이 많아 걱정이라던 널
무참히 난도질 했다.

전국에서 제일 처음, 제일 많은 교사를
교문 밖으로 내몰던 그 잔혹한 손으로
빗속에서 울며 항의하던 학생들의 어깨를
전경차로 위협하고
"언제라도 이곳에 학교를 밀어내고,
아파트를 지어 돈 벌 수 있어"하던
그 야비한 장사치의 손으로

세월이 지났다고 어찌 잊을 수 있겠느냐.

우리들의 가슴 아픈 여고시절을
참교육을 원하며 내딛었던 한 걸음, 한 걸음을.

88년.

그날도 지리하고 반복되는 월요조회는
소리 없이 학생들의 가방이 검사되는 것으로 시작되었
다.

'문과와 이과'의 성적차이를 면밀하게 그래프로 분석한
교장 선생님.

외국의 어느 남학교엔
학생들의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 속옷 색깔도 식사량도
조절한다며

기염을 토하고.

우리는 딱딱한 부동자세에 길들여 있었지.

전국수석 자리를 놓칠 수 없다며

보충수업, 자율수업, 방송수업

방학 중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휴가중 고사를 실시해서
학생들의 긴장감을 늦추지 않겠다던 교장선생님.

회색의 시멘트 덩어리.

그들 하나 없던 딱딱한 운동장.

폭발적이던 만우절의 개구장이짓도
오리걸음과 '정신통일'을 외치며
전교생이 나란히 어깨를 걸고 앉았다. 일어섰다.
군대에서나 볼 법한 벌칙으로 끝을 맺고,
다시 부동자세로 차렷!

그것만은 아니었다.

87년 6월 항쟁의 뜨거운 열기 뒤에

세상은 조금씩 변해 갔고

참교육을 실천하려는 선생님들의 꿈이

우리들 가슴 속에 하나, 둘 자리잡아 갔다.

우리들이 발 딛고 있는 세상을, 학교를

더 넓고 깊게

우리의 권리는 우리 손으로 찾겠다는 뜨거운 가슴으로

장대비가 꽃히던 6월 29일.

"학생회비 공개, 휴가중 고사 폐지, 보충, 자율학습 개
선"을

요구하며

운동장에 집결했다.

4시간 동안 농성 끝에
교장 선생님은
뻗뻗하게 굳어 푸르스름한 얼굴빛으로
약속했다. 학생들 앞에서
“모든 요구사항들을 인정하고, 차후의 처벌은 없다.”
박수와 환호.

그 다음날
터질 듯한 긴장감 속에
밀폐된 강당
학생들은 무릎을 꿇고.
왕왕거리던 고함소리.
배후자 색출, 선동자 색출.
날마다 아이들이 불려가고
애꿎은 선생님들이 징계대상이 되었다.

“학생들 힘으로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일을 벌일 수 있
겠어!”

어른들의 약속이
그렇게 쓰레기처럼 버려질 수 있음을

그때 처음 알았다.

학생회장과 선생님의 징계철회를 요구하며
학생들이 하교를 하지 않고
졸업한 언니들이 항의서를 발표하고
선생님들이 성명서를 내고서야
그 길고 긴 싸움이 끝이 났다.

89년,
선생님들이 철야농성을 하고
단식을 하며
끝끝내 포기하지 않겠다시던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선생님께서 철야농성을 하실 때
야간자습을 마친 학생들은
“선생님 힘내세요. 저희들이 있잖아요.”
선생님께서 단식을 하실 때
학생들은 스스로 매점을 가지 않았다.

학교 곳곳에 나붙던 우리들의 대자보

떼고 떼고 또 떼어도
지치지 않고
매일같이 붙여지던 학생들의 외침
“우리 선생님은 우리 손으로 지킵시다.”

그 중요한 고3이란 시기에
우리들은 시험을 연기했다.
“선생님의 징계가 철회될 때까지
우리들도 함께 할 것입니다.”
조기방학으로 돌입한 후에도
몇백 명의 학생들은
학교로 집결했다.
6월의 장마 앞에서 지치지 않고.

“사랑의 학교, 믿음의 학교, 참교육만이 할 수 있습니다.”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머리채가 휘어잡혀 끌려가던 선생님.
거친 전경들의 방패에 피흘리던 선생님.
욕설과 왜곡보도 속에 모욕당하시던 선생님.

그해
전국적으로 천오백여 명의 선생님들이
해직을 당하셨다.

우리들은 패배감과 안타까움 속에
‘출근투쟁’을 하시던 선생님의 손을 잡고
통곡을 했다.
교문은 통제되었다.
꼭대기 교실에서 내려다 보던
조그맣게 그리운 선생님들의 모습이 보일라치면
부끄러워 몸을 숨겼다.
눈이 시리다며 자꾸만 눈을 비벼댔다.

굳게 닫혀진 교문의 쇠창살은
왜 그리도 높고 두텁기만 하였던가.

해직선생님과 함께 학교로 들어가려던 아침엔
미리 전경차가 대기하고
곳곳엔 사복경찰이 감시를 했다.
해직된 선생님과 만나는 일조차
징계사유가 되었다.

그렇게 우리들은
'가장 수치스러운 경화인' 이었다는
교장선생님의 졸업축사를 들으며
졸업을 했다.

그렇게 우리들은
뺨 뚫린구멍을 안고
학교로, 현장으로 떠나갔다.
많은 것을 얻었고
또 많은 것을 잃기도 했던 모교라고
고개를 질레질레 흔들며.

그리고 우리는 조금씩 잊어갔다.
장시간 비를 맞아퍼렇게 얼어 외치던 아이들을 향해
"이게 바로 공산주의야."
하시던 선생님들.
끄덕도 없던 회색의 건물.
머리채를 잡으며
"하라는 공부는 얇고 데모는 무슨 데모냐.
아이고, 같이 죽자, 같이 죽어.
길길이 뛰던 육성회 어머니들

이젠 내가 당하지 않는다고
더 이상 우리의 아픔은 아니라고
그렇게 잊고 있던 우리들

우리들이 지키지 못한 학생회를
우리 손으로 지키지 못한 선생님을
넌 그렇게 힘들게 남아서
지키고자 애쓰다가
쓰러져 갔느냐.

진상을 규명하러 찾아간 학교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다.
겹 먹은 아이들의 눈동자
교문에서부터 막아서는 선생님들
도망치듯 운구차가 빠져나가고
학교는 그렇게 죽어 있었다.

수경아.
벌써 4년이 지났다. 어느새.
너의 친구들도 졸업을 했다.
가끔씩 학교에서, 거리에서 만날 때면

예뻐진 숙녀티가 눈이 부시지만
그 속에 있어야 할 너가 없다.
후배들은 이제 너가 누군지 잊어 가고.
사람들은
세상이 참 좋아졌다고 저마다들 이야기한다.

하지만
무엇이 변했느냐.
그날의 우리들처럼
후배들은 여전히 고통과 억압 속에 남아 있고
여지껏 학교로 돌아가지 못한 선생님들이 거리에서
힘들게 싸우고 있는데.
너의 추모제가 한 번도 모교에서 열리지 못했다는
부끄럼만 안고 있는데.
아니다. 그것만은 아니다.

스승의날에 찾아간 선생님은
교실보다 넓은 거리에서
넉넉하게 웃고 계시는데.
참교육, 전교조 합법화 그날까지
가난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데.

너의 선배와 친구들은
꿈을 버리지 않고
저마다 뜨거운 가슴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계절이 바뀌고 나이를 먹어
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다.
조막 만한 아이들의 눈동자엔 거짓이 없고
진실은 반드시 지켜야 할 아름다운 것이라고.
그것이 인간다운 것이란 걸
아이들은 그 자체로 내 앞에 서 있다.

그 아이들 속에서 널 본다.
살아가는 것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힘들어 주저앉고 싶을 때
나의 스승인 수경이가 오늘도 내 앞에 서서 말한다.

“꿈을 꿀 수 있는 세상.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
거짓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우리의 교정

얼어붙은 교실, 얼어붙은 운동장
태양도 빛을 잃어 아, 캄캄한 우리의 교정
어디에서 왔나 얼굴 야윈 친구들
무얼찾아 헤메이나 저 눈 저 매마른 손길
자율학습 이제는 그만, 보충수업 이제는 가라.
부동자세 끝 없는 시험, 반민주 이제는 깨리
오, 사랑 이제는 여기에
오, 자유 이제는 여기에
오, 민주 이제는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노래 '금관의 예수'를 경화여고 학생들이 개사한 곡으로서, '88년 전국적으로 보충수업·자율학습 폐지 운동이 일어났을 때 널리 불리워졌다.

혀 잘린 선생님

우리들에게 응답하소서.
혀 잘린 선생님
우리 소원 들으소서, 귀먹은 선생님.
얼굴을 돌리시는 화상 당한 선생님.
그래도 내게는 하나뿐인 민주교육 선생님.
선생님 당신은 잊어버렸나
억눌린 교탁에서 울고 있을까
선생님 당신은 묻혀 버렸나
혀잘린 선생님.

노래 '혀 잘린 선생님'을 경화여고 학생들이 개사한 곡

제 1 부

참교육 참세상에 다시 살고 싶어라

—김수경 열사의 유서와 편지글 모음

Dear 선생님

선생님! 먼저 이런 글을 올리게 될 수밖에 없는 절 용서부터 해 주세요.

뭘 어떻게 써야 할지 타고 오는 버스 속에서 한참을 생각했는데 결국 제게 남은 건 눈물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 편지가 도착할 때쯤이면 전 이 세상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자살'이란 거에 동경을 느껴오긴 했지만.....

3학년애 올라온 전 한창 꿈에 부풀었습니다.

어렵없는 성적으로 서울엘 가고 싶다는 엄청난 꿈을 꾸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기 힘들어도 쉴새없이 계속되는 보충수업, 정규수업, 방송수업, 자율학습.....

모든 게 숨이 막혀도 아주 잘 참아냈어요. 가끔씩 몸이 아프긴 했어도 견딜 수 있었구요.

그런 동안 3월 모의고사를 치뤘습니다. 물론 형편 없는 성적이었지만 그래도 가슴 한 구석에서 이제까지의 절 지켜 준 건

Dear 선생님

선생님! 먼저 이런 글 올리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건 용서부터 해주세요

뭘 어떻게 써야 할지 타고 오는 버스에서 한참을 생각했는데

결국 남은 건 눈물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 편지가 도착할 때쯤이면 전 이 세상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자살'이란 거에 동경을 느껴오긴 했지만.....

3학년에 올라온 전 한창 꿈에 부풀었습니다

어렵없는 성적으로 서울엘 가고 싶다는 엄청난 꿈을 꾸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기 힘들어도

쉴새없이 계속되는 보충수업, 정규수업, 방송수업, 자율학습.....

모든 게 숨이 막혀도 아주 잘 참아냈어요. 가끔씩 몸이 아프긴 했어도 견딜 수 있었구요

그런 동안 3월 모의고사를 치뤘습니다. 물론 형편 없는 성적이었지만 그래도 가슴 한 구석에서

이제까지의 절 지켜 준 건

4월 초순에 접어들면서 상담이란 게 시작되었습니다. 1번, 2번, 10번 학생까지 갔다 오고, 모두 침울해 하고 간혹 우는

애들도 있고 잔뜩 긴장을 했었지요.

'할 수 있다'는 오기 하나였습니다.

4월 초순에 접어들면서 상담이란 게 시작되었습니다. 1번, 2번,.....10번 학생까지 갔다 오고, 모두 침울해 하고 간혹 우는 애들도 있고 잔뜩 긴장을 했었지요.

그러다가 허리의 통증 때문에 제 상담 차례를 어기고 엄마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잠깐 엄마와 담임(선생님?)과의 대면이 있었는데 그 틈을 이용해 은남이 선거 때 창조연설했던 얘기, 학교에서 주시하는 인물이라는 등 써클에 가입이 되어 있느니 어쩌니 저쩌니 하는 식으로 얘기(고자질)을 했었던가 봐요.

물론 그 자리엔 제가 없었죠. 아무것도 모르고 병원에 다녀왔는데, 그날 저녁 엄마가 제게 조용히 얘기를 하시더군요.....

너무 기가 막혀 오히려 제가 화를 내 버렸어요.

그 다음날 전 도살장에 끌려가는 돼지풀을 하고는 진학실로 갔습니다.

앉자마자 대뜸 묻는 얘기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자주 만나는 선배 애긴 뭐냐.", "전교조 선생님이 어쩌고 저쩌고....."

끓어오르는 그 뭔가를 참으며 아주 상냥하게 대답을 하고는

제가 허리에 통증때문에 제 상담차례는 어기고 엄마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잠깐 엄마와 담임(선생님?)과의 대면이 있었는데 그 틈을 이용해

은남이 선거때 창조연설했던 얘기, 학교에서 주시하는 인물이라는 등 써클에 가입이 되어

있느니 어쩌니 저쩌니 하는 식으로 얘기(고자질)을 했었던가 봐요

물론 그 자리엔 제가 없었죠. 아무것도 모르고 병원에 다녀왔는데 그날 저녁

엄마가 제게 조용히 얘기를 하시더군요.....

너무 기가 막혀 오히려 제가 화를 내 버렸어요.

그 다음날 전 도살장에 끌려가는 돼지풀을 하고는 진학실로 갔습니다

앉자마자 대뜸 묻는 얘기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자주 만나는 선배 애긴 뭐냐."

"전교조 선생님이 어쩌고 저쩌고....."

끓어오르는 그 뭔가를 참으며 아주 상냥하게 대답을 하고는

4월 초순에 접어들면서 상담이란 게 시작되었습니다.

1번, 2번, 10번 학생까지 갔다 오고, 모두 침울해 하고 간혹 우는 애들도 있고 잔뜩 긴장을 했었지요.

성적 얘기 30초, 그렇게 진학실 문을 나왔습니다.

선생님, 그때 제 기분 이해할 수 있으세요?

비겁하고 비굴하게 왜 이렇게 초라한지 친구 등에 얼굴을 묻고 그냥 울어 버렸어요.

그렇게 그게 끝인 줄 알았어요.

국사시간마다 눈은 제가 앉아 있는 분단쪽을 향했고 분단 아 이들이 당황했어요.

선생님! 제가 작년에 전교조를 지지했던 것도 사실이었고, 그런 선생님을 더 좋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 하나만으로 제가 학교 다니기가 불편하다면, 아니 고통스럽다면 이미 그곳은 학교가 아닙니다.

오늘 청소시간에 자신의 말을(?) 무시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따귀를 맞고 모든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 습니다.

서진교! 그 사람은 제게 반항적인 행동이 보였으니, 순종이 좋지 않으니, 그러다가 퇴학이 어찌니 저찌니, 앞으로의 사회 생활이 어찌니 저찌니…….

그러곤 자신이 너무 했었다고, 아무 감정도 없었다고…….

비겁하고 비굴하게 왜 이렇게 초라한지 친구 등에 얼굴을 묻고 그냥 울어 버렸어요.
그때 그게 끝인 줄 알았어요.
국사시간마다 눈은 제가 앉아 있는 분단쪽을 향했고 분단 아 이들이 당황했어요.
선생님! 제가 작년에 전교조를 지지했던 것도 사실이었고, 그런 선생님을 더 좋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 하나만으로 제가 학교 다니기가 불편하다면, 아니 고통스럽다면 이미 그곳은 학교가 아닙니다.
오늘 청소시간에 자신의 말을(?) 무시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따귀를 맞고 모든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 습니다.
서진교! 그 사람은 제게 반항적인 행동이 보였으니, 순종이 좋지 않으니, 그러다가 퇴학이 어찌니 저찌니, 앞으로의 사회 생활이 어찌니 저찌니…….
그러곤 자신이 너무 했었다고, 아무 감정도 없었다고…….

확실히 전 학교가 주시하고 있는 주요인물이었습니다. 그게 너무 서럽고……. 더러운 세상(죄송합니다)이라고 생각했습니 다.

모두들 제가 걸려들기만을 기다렸던것 같았습니다.

제가 죽은 후 세상은 질 '성적 때문에 비판자살을 했노라' 고, 그렇게 왜곡되는 게 싫었습니다.

어떻게든 참고 이겨보려 했지만 이제 모든 게 싫습니다.

제가 어린 학생이 아닌 어른이 되어 버린다면, 아니 세상에 물들어 버린 어른이 된다면…….

그런 것도 두렵구요.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다.

이런 제자 둔 것 너무 마음 아파하시지 마시구요.

건강하세요.

전교조를 지지했던 게 죄가 된다면 법정에서 몇몇이 죄값을 받고 싶습니다.

90. 6. 5. 수경 올림

* P.S. 선생님 사랑합니다.

이제 내 제 권리와 바리 아셨습니까?
다음엔 어떤 나라라도 남겨 놓지 않으려 합니다.
나기만 하면 내가 죽은 후 세상은 그 성적때문에 비판자살을 했노라
그렇게 왜곡되는 게 싫었습니다.
어떻게든 참고 이겨보려 했지만 이제 모든 게 싫습니다.
제가 어린 학생이 아닌 어른이 되어 버린다면
아니 세상에 물들어 버린 어른이 된다면
그런 것도 두렵구요.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다.
이런 제자 둔 것 너무 마음 아파하시지 마시구요.
건강하세요.

전교조를 지지했던 게 죄가 된다면 법정에서 몇몇이 죄값을 받고 싶습니다.

P.S. 선생님 사랑합니다.

90. 6. 5
수경 올림

윤남아!

내가 학교에 또 다시 오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아니 안 올 것 같다.

과연 우리학교는 다닌 곳이 못 된다는 걸 느꼈고

한 번 운동권(?)의 짝인 학생은

사사로운 트집이 된다는 걸

윤남아!

힘들었지만 우리 학교 잘 이끌어라.

너도 학생회장에 선임됐으면 어떻게 되었을지
안 것 같다.

각각이긴한데 역시 좋은거다.

더는 더라도 내 주름이 왜곡되거나

안았음 좋겠다.

행복해라.

90. 6. 5

가

Dear. 똥이

집에 돌아와서 씻고 먹고 책상서랍 책정리를 하다 보니 시계
는 어느덧 11시 30분을 향해 달린다.

방안이 너무 더운 듯해서 창문을 열었더니 초여름 날씨답지
않게 쌀쌀함이 느껴진다.

책상 앞에 놓여진, 친구로부터 선물 받은 하트 모양의 거울을
보며 웃어 보기도 하고, 찡그려 보기도 하고.

아무리 봐도 투명스럽다거나 강해 보이는 곳은 한 군데도 없
는데…….

그건 그렇고, 지금 뭘 하고 있니?

혹 울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조바심(?)이 생겨 잠깐 펜을 들
었다.

나와 함께 있으면 편안하다는 말과 웬지 강해 보이고 장난기
있는 표정 뒤에는 철저히 따듯한 온정(외우느라 고생했음)이
있다는 말을 몇 번이고 되씹어 봤지만 지금의 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다.

주위에서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아야지 뭐.

참, 네 맘 속에 새겨진 미안하다는 문신!

이젠 지워버려도 괜찮을 듯 싶은데…….

네 말대로 우린 친구니까.

하루빨리 네 목표를 정하는 게 좋을 듯하다.

앞으로 널 지켜 줄 튼튼한 방패가 될 수 있을테니.

최후의 승리자가 되길 빌어 줄게. 진심으로…….

너무 즐겁다.

88.6.9 p.m 11. 50 경.

P.S 9일 밤 남아 있는 10분을 아끼려고 해.

Dear. 나의 친구

펜의 그림자가 가득한 소연이가 내게 건네 준…….

그 사연들을 눈으로 더듬으며 심장 고동이 멎어 버리는 듯한 이상 야릇한 느낌에 한동안 사로 잡혔었다.

어쩔 위선일지도 모르는 나의 행동에 대해 지나치게 고마워하는 네 모습이 착하게 여겨진 탓도 있겠지만 나의 모든 면에 대해 좋은 점수를 주는 네게 죄의식(?)이 싹트고 있음을 느껴서랄까?

소연이 옆에 늘상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꼬마는 열일곱이 란 나이에 걸맞지 않는 세속에 물이 들었단다. 그런 내 모습을 부정하고 싶은 이유에선지는 잘은 모르지만, 아니, 소연이의 순수함을 좋아하게 됐다.

아무튼, 오늘의 내 모습이 지나치게 초라하게 여겨진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말만 친구이지 친구의 자격은 있는지, 정녕 친구의 역할은 무엇인지, 역시 어쩔 수 없는 미지수다.

같이 있을 때면 한 때 기억 남을 농담밖에 내 뱀을 줄 모르는 녀석, 그게 바로 나.

소연이가 아파하는 모습을 볼 때면 같이 아파 줄 수 없고, 그 고통 덜어 줄 수 없어. 혼자 가슴 죄며 어떻게 해 줄 수 없어. 방관만 해야 하는 나의 무능함. 어쩔 인간이기에 느껴야 하는 쓴 맛이기도 하겠지만 언제나 특별하고 싶은 한 인간의 교만인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며 너의 건강을 빌어 보기도 하지만 고통에 지친 축축한 너의 두 눈을 바라볼라치면 어느새 내 눈에 맺힌 물방울을 부정할 수 없게 한다.

소연아, 독한 밥 먹고 건강 다시 되찾길 바란다. 아프면 내가 좋아하는 모든 일들을 할 수가 없잖아.

나, 아무래도 한 여름 이 삼복더위 중에 감기 걸렸나 봐. 여름감기는 개도 안 한다던데, '0시의 데이트' 오랜만에 들어 보는 이순영 언니 목소리. 내가 가장 좋아하는 목소리의 주인공, 까

만 밤하늘에 떠 흐르는 몇몇 별들의 유유자적함을 휘방 놓는 큰 쇠뿔이 소리. 밤의 적막함을 깨뜨리는 듯해서 괜히 심술난다. 어느 시인이 말했지 밤은 약한 사람들의 최대의 행복이라고…….

그 중의 한 사람이 바로 난가 봐. 밤을 무척 좋아하거든. 모두가 잠들어 버린 이른 새벽을 특히 더 좋아하지. 여름방학 중엔 그런 여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얼마나 흐뭇한지.

소연아, 두서없이 써 내려온 탓에 말의 앞뒤 내용이 잘 맞는 지, 내가 하고 싶은 얘기의 뜻이 잘 전달될는지 걱정이 된다.

오해가 없길 바라며.

꿈나라행 기차를 빈 차로 보낸 것이 마음에 걸린다. 언제 다시 와서 울지 모르겠다.

소연아, 잘자라.

88. 7.11(?) From. 경

* P.S 밀양에 다녀온 효과가 좀 있었니?



Dear.

책상서랍 속에 든 친구들의 편지를 정리하면서 잊혀진 나의 옛모습을 발견했다. 아직 죽을 수 없다고 외치며 공부에 빠져들기를 원했고, 그렇게 되는 줄만 알았다. 하지만 그건 나의 착각이었고 실패의 쓴 잔을 마셔야 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난 빈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된다. 영세는 받았지만 진정 난 충실한 종교인인가?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공부를 하고 있긴 하지만 진정 난 학생인가? 친구와 항상 웃고 얘기하지만 정말 난 그 친구를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난 이때까지의 내 삶이 모든 헛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다. 죽음으로 인해 이제까지의 살아온 날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멋지게 살고 싶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다. 언제나 웃고 있지만 웃음은 그때일 뿐 그것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 늘 마음 한구석엔 외롭다는 생각으로 가득하다. 무엇이든지 가득 채우고도 싶은데…….

난 언제나 한 친구에게 모든 걸 걸었어. 그 친구가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길 원했고 그 친구의 모든 것이 되고 싶었어.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았어. 그때의 그 심정을 배신감이라 해야 하는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 다만 빈껍데기의 17년간의 생을 슬퍼하고 있을 뿐 무슨 일이건 간에 빠져들 수 없는 또 하나의 슬픔 아닌 슬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아주 의미 있는 일이야.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 말야. 지금의 내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은 오로지 질투와 독단과 독선, 웅졸함 뿐이다. 안병욱씨의 에세이 '삶의 길목에서' 라는 책을 읽으며 '넓은 마음 갖자. 넓은 마음을 갖자' 라고 외치며 나를 자제한다. 좋은 내용이 많은 것 같다. 내가 다 읽고 나면 빌려 줄게. 한 번 읽어 봄으로 해서 일상생활에서 쉽게 지나치는 모든 것들. 격언 아무튼 좋아.

밤이니까 아무래도 잠을 좀 자야겠지? 그래 잘래.

88. 7. 22 From. 경

* P.S 와! 내일 토요일이다.

Dear. 선생님

선생님! 안녕하시죠?

선생님께선 유난히 힘들고, 제겐 너무도 길고 덤덤 여름이 이젠 한 걸음 물러나 우리들을 지켜보며 머지 않아 다가올 '가을'이란 녀석(?)을 기다리는 듯 합니다.

아직도 종례시간이면 떠드는 우리들 가운데 '짤' 하고 빙그레 웃으시며 교실로 들어오실 것 같은데 매번 들어오시는 분은 우리들 눈에 익고 귀에 익은 우리들의 선생님이 아니십니까.

선생님! 실장직이 너무 힘이 들어 못하겠다고 투정부리던 그때가 이젠 행복의 아우성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학기초, 자리배정 때 유난히 키에 대한 콤플렉스 때문인지 60개의 도토리들 일일이 자로 재듯……. 그 덕택에 맨 앞자리 운명의 신은 결국 저를 버리지 않았는지 '가위, 바위, 보'라는 선택의 기회를 통해 두 번째 자리를 배정 받고, 그때의 기쁨이란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었겠습니까?

6개월 동안 5Cm 이상 커야 한다는 최대의 목표달성을 두었지만 역시 도토리는 도토리인가 봅니다. 별로 크지 않았거든요.

선생님이 안 계시는 만큼 더 열심히 공부할게요. 1학기 때는 적당히 하는 식으로 공부하곤 했지만 2학기가 시작되었으니까요. 언제 한 번 장래희망 조사할 때 정치가란에 크게 손 들었던 일 기억나세요? 지금 제 꿈이 뭔지 아세요? '문교부 장관' 이에요. 제 꿈을 달성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실래요?

선생님! 몸 건강하시고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 나가시도록 항상 빌어드릴게요.

89년 9월 1일 수경 올림

*P.S. 그리고 선생님 저희 2-4반 걱정하세요. 네?

효선 선배 받으실래요?
 저요? 선배 알기를 우습게 아는 녀석요. 이제 아시겠죠?
 토요일날 종합전에 그 우아한 자태를 드러내실 것 같더니, 왜 안 오셨수. 우리 선생님도 오셨는데. 그리 바쁘우?
 영은이 그 녀석도 무척 기다리는 것 같던데,
 지금 앉아 있는 곳은 독서실이라우.
 이름도 유명한 '학우 독서실'.
 독서실에 앉아 편지나 쓴다고 나무라지 마시우. 언니한테 쓰는 답장인데…….
 책상 위에 놓인 누런 봉투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주소를 보니 곧 선배님인 걸 알았다구요.
 시골장터를 둘러 보신 소감이 너무 간략한 것 같은데요. 재가 약 올라 할까 봐서요?
 하긴 그런거 생각하는 사람이 아침에 학교가는 사랑스런 후배에게 그런 말을 했을라구. 다 이유가 있겠지.
 나도 놀러나 갈까? 실연 당한 기념으로.
 참, 언니 곧 졸업 아니우? 이 나이에 축하한다고 할려니 참 썩스럽수. 그냥 넘어가면 안되우?
 선배님! 토요일날 선생님의 뉘두리 아닌 뉘두리를 들었습니다. 핑계 아닌 핑계지만 전 입시라는 명에 때문에 선생님의 받침대 역할을 해 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선배님은 이제 졸업하시니까…….
 선배님 앞에서 재롱 떠는 후배는 몇이나 됩니까?
 억울하옵니다. 선배님! 너무 두서 없이 쓴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엔 전혀 공부에 신경을 못 쓰고 있습니다. 잡념 때문에. 그래서 전화를 드려도 안 계시고 선생님은 Slump인 것 같다고 하시지만, 아마 제 자신에게 실망한 것 같습니다.
 선배님! 두렵고 떨리고 잘 버텨 낼지도 의문입니다. 그렇지만 해 볼 결심입니다. 선배님은 제 옛값만 걱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해 본 뉘두리에 불과한 겁니다.
 선배님도 건강하시고 사업이(청춘사업) 번창하시길.
 후배 둘리 드림

Dear. 효선 선배

언니! 안녕하시죠?
 비 오는 수요일에 언뜻 보았을 땐,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르지만 젖은 모습과 제게 노래 한 곡 불러 보라던 그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험과 날로 그 빛이 퇴색되어 가는 학교 생활에 지쳐 있을 선배님께 버릇 없는 후배가 편을 들었습니다.
 이 편지 보시고 잠시만이라도 웃어 주신다면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목적은 달성한 셈이되는데요…….
 언니! 막상 편을 들고 생각하니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몰라서…….
 아참, 언니. 저 오늘 회칙 개정 문제로 최미향 선생님 댁에 갔었어요. 우리 선생님은 다른 약속 땀에 못 오시고 김영숙 선생님과 지현이, 수미, 수정, 둘리. 이렇게 넷이서 얘기 좀 하다가 무거운 몸을 가누시기에 무척 애쓰시는 분께서 직접해 주신 저녁을 먹고(선생님 건망증 때문에 구워놓은 고등어 못 먹고 왔음) 선생님이 권해 주신 책(제목: 선생님, 정답이 틀려요(?) 잘 기억 안남, 요즘 건망증으로 시달림)을 읽고 난 후 다시 보며 세부적으로 토론하기로 했죠.
 재미 있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너무 사무적인 얘기를 한 것 같아 죄송한(?) 생각도 들고 가끔씩 찾아가서 재롱도 피워야 하는데 요즘은 뭐가 바쁜지도 모르게 시간은 우릴 무시하고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청송맞게 내리던 초겨울 빈지 늦가을 빈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쳤고 다시 내리쬐는 햇볕도 구경할 겸 해서 언니, 이번 주말은 광합성을 좀 하심이 어떨는지요…….

89년 11월 10일

From. 둘리

Dear. 최 진열 선생님 보실래요?

선생님! 그동안 몸 건강히 잘 계셨어요? 선생님의 못난 제자 이제서야 선생님께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은 많이 받으셨구요?

바쁜 일 속에서도 일일이 저희들에게 엽서를 보내 주셔서 너무 죄송하고 어찌나 부끄러웠던지요.

유난히 올 일이 많았던 89년은 너무 쉽게 우리들 곁을 떠나 버렸지만 말처럼 썩썩하게 달려온 90년엔 웃을 수 있는 일들만 생겼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저번에 전화드렸을때 무척 힘드시는 듯했는데 지금은 어떠세요?

저희들이 힘이 되어드려야 하는데..... 선생님! 용서하시죠? 참, 사모님께셔도 잘 계시죠? 영경이도요. 전화 못 드린 지도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선생님 앞에선 어쩔 수 없이 못난 제자가 되어 버리고 맙니다.

선생님! 저희들 이제 고3입니다. 아시죠? 오늘밤도 생각이 너무 많아 잠이 오질 않습니다. 아직도 저희들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으세요. 모두들 가진 꿈이 있으니 열심히 할 겁니다. 저두요.

선생님! 잠 안 오는 새벽에 혼자 앉아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 쓰는 일이 이렇게 낭만적인 줄은 몰랐는데요? 선생님께 드릴 말씀이 무척 많은 것 같은데 웬지 선생님을 마주하면 암말 못 하는 거 아시죠?

우린 눈으로 말하니깐요. 갑자기 써서 그런지 두서 없는 글이 되고 말았습니다.

열심히 뛰시는 것도 좋지만 건강하셔야 해요. 공부 열심히 할게요.

사모님께 안부 꼭 전해 주시고요. 선생님 뒤편 저희들이 있다는 것 항상 잊지 마세요.

'90년 1월 7일 새벽에 (선생님반)수경이가 올립니다.

* P.S 올헨 말(馬)처럼 뛰시고 말(語)처럼 사세요.

Dear.

소연아! 우선 생일축하보다 지난 시간들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옳을 것 같다. '미안하다'는 말보다 더 그럴싸한 사과의 message(?)를 전하고 싶은데 배운 게 고작이라서.....

그리고 보니 정말 오랜만에 네게 펜을 든 것 같아. 그동안 내가 얼마나 무심했는지를 새삼 느낀다.

왜 진작 내게 얘기하지 않았냐? 다른 사람에게는 못할 얘기지만 적어도 내게만은 해 줄 줄을 믿었던 내 잘못만을 탓해야만 할까?

아무튼 죄 많은 이 인간탓이지 뭐.

사실 며칠 동안 내가 차갑게 느껴졌던 건 사실이었다. 그래서 함부로 다가설 수 없었던 게 괴로웠고 그랬기 때문에 더 크게 웃는 여유를 가지려 애쓰면서 가끔씩 결눈질로 널 관찰했었다.

이만하면 됐냐? 앞으로 잘 지내지 뭐.

이 나이에 썩스럽게서리.....

야! 그건 그렇고 어떻게 이 언니에게 생일이란 걸 얘기 안할 수 있냐? 요 앙큼한 것!

중학교 때 친구만 친구 명단에 들어가고 고등학교 때 친구는 친구 아니니?

고3 생활이란 게 사람을 다 망치는 거 같은 기분이 들어 무지 무지 화난다.

작년까지만 해도 생각지 않으려도 저절로 떠올라 갈피를 못 잡았던 그 수많은 편지 사연과 노랫말, 시구절.....

그런데 이젠 내 기억 속에 그런 따위들이 외면 당한 지 오래다. 다만 내신 몇 등급에 모의고사 몇 점이 되어야만 어떤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는 것들에 혈안이 되어가고 있을 뿐이다.

Ostrich와 내가 번갈아(?) 쓰러져 들려 나가는 것을 보고 한숨에 섞여 벨어진 푸념의 말들 '꼭 이렇게 살아야만 하나'.....

소연아! 건강해라. 아픈 모습이 웬지 싫다. 왜 그런지 알지?

그렇다고 아프면서 안 그런 척 참는 건 날 무시하는 태도로 간주하기로 했다.

소연아! 이 나이에 생일축하 인사는 생략해도 되지?
오늘 주고 싶었는데 이 언니의 청춘사업이 바빴던 관계
로..... 작은 거 하나 샀다. 오늘은 너무 바쁜 날이라 성의가
없다고 생각해도 할 말은 없지만 그냥 고마운 '척' 하고 받는 거
다.

우리 집 706호에서 307호로 바꿨다. 그래도 이사는 이사잖
아.

오후에 저녁 7시경 전화했는데 없더군. 다행인 줄 알아라. 오
늘이 만우절이잖아.

봄이다.

90. 4. 1 경아가.

* P.S 먹다 남은 생일 케익 없니?

Dear. 영순

영순아! 미안하다.
널 피한 것이 아니었다는 걸 알아 주었음 좋겠다.
공부 열심히 해.
필요하면 내가 언제든지 S.O.S를 치럼.
기꺼이 응해 줄께.

제 2 부

그대 가고 없는 빈 자리에 우리만 남아 —김수경열사 추모의 글 모음

시

우리는 너를 이대로 보낼 수 없다
다시 수경이를 그리며

약속

추모

아린 상처 후엔 더욱 단단한 살이 돋는다는데
수경이 언니가 떠나 버린 세상에는

산문

지금은 우리가 서로의 상처를 확인하는 때
수경이를 생각하며
수경아! 항상 난 너를 생각하고 사랑한다
수경이 앞에 죄인된 모든 교사에게
우리의 친구 수경이
사랑만큼이나 큰 분노로 일어설 때

단편소설

무서운 외출

콩트

어떤 소문

수경아,
우리는 너를 이대로 보낼 수는 없다 외1편

배 창 환
전 경화여중 교사·시인

수경아,
너는 지금 어디 있는가.
누가 너를 저 하늘 바람끝
아득한 곳까지 불러 갔느냐,
누가 너를 저 하늘 바람끝에서
아득한 곳으로 데려 갔느냐,
어떤 사랑이 흘러 넘쳐서
어떤 분노가 끓어 올라서
너를 우리 곁에서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길 건게 하였느냐.

그러나 수경아, 우리는 너를 이대로 보낼 수 없다.
너의 어머니가
“우리 수경이를 이대로 보낼 수 없다!”
울부짖으며 마지막으로 너를
옛 교정 운동장으로 데려왔을 때
어리석게도 우리는 너를
눈감겨서 우리 가슴에 묻을 수 있을 줄로 알았다.
한 줌의 흙으로
더 크고 넉넉한 사랑의 품으로
너를 돌려보낼 수 있으리라 믿었다.
넌 너무나 먼 길을 걸어왔고

많이도 지쳐 있었고
이젠 쉬고 싶으리라 생각되었고
너를 우리에게서 빼앗아 간 자들이 보이는 거짓 눈물을
정말 인간의 눈에서 내보내는
마지막 양심의 눈물이라 믿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러나
“나의 죽음을 왜곡시키지 말라!” 외친
유서의 잉크빛이 바래기도 전에
너를 폭행하고 죽음으로 몰아내고도
비열하게도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자들이
너를 두 번, 세 번, 열 번씩이나 죽이고, 죽은 너를 매질하고
있다.

“너는 원래부터 정신이상자였고
중학교 때부터 동맥을 끊어왔고 세번씩이나
자살을 기도한 어리석은 성격파탄자이며
항상 벌레 씹은 얼굴이었고
지도 불가능한 문제아였다.”고
혹은 너를 죽음으로 몰고간 사람은
사람 좋은 양심가로 둔갑되고

너의 죽음에 책임이 없으며
“단 두 번밖에 때린 적이 없고”
그것도 순전히 사랑의 매였으니
너는 죽으면서까지 ‘스승의 은혜를 배신으로 갚은’
부도덕한 아이로 바뀌어졌다.

그러나 보아라, 오늘도 하늘은 천 년은 말이 없으나
여전히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으며
예로부터 하늘은 마른 하늘에도 벼락을 내려
인간의 진실을 밝혀 왔으니
거짓이 진실을 잠시 가릴 수는 있어도
마침내 그 추한 얼굴을 가릴 수는 없는 법

아아, 우리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너는 얼마나 차분하고 헌신적이고 쾌활하며
사려 깊은 친구였는지
얼마나 넉넉한 가슴으로 스승을 공경하는 제자였으며
사랑 받는 딸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부정과 비리를 미워하고
진실과 정의 앞에 용감하였는지

그렇다, 수경아
우리는 이제는 확실히 깨닫고 있다.

너의 죽음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너의 죽음은 혼자만의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그토록 미워한 폭력과 탄압의 공포에
온몸으로 항거하기 위하여
이 어두운 죽음의 교정에 스스로를 던져
불을 살려내는 불씨가 되고
음모와 기만, 불의의 탄압과 맞서는 밑알이 되었다.
수경아, 너는 마침내 저 들판 가득 고개 쳐드는 풀꽃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하나 살아 오르고 있다!

('90년 「위령제 자료집」에서)

다시 수경이를 그리며

강변에는 아이들이 놀고 있다
아무리 보아도
널 닮은 아이는 없다
그날 흩어진 네 육신 강을 타고 흘러
흘러서 지금은 어디서 무엇으로 살아 있는지

강 저편 누더기 집 사이로
붉은 해가 갈았고 있다
방죽 위로 새로 제복을 맞춰 입은 아이들은
푸석한 머리칼을 버들잎처럼 날리다 가고
강물 위론 길게 늘인 불빛 몇 개 흔들리다 떠가는데

널 삼킨 밤은 아직도 길고
남아서 그 밤들을 맞는 우린 늘 부끄럽다
아직도 널 편안히 잠재워 줄 수 없고
무엇보다 네 교정을 사랑으로 다시 세우지 못하였으니.

('92년 「2주기 추모집」에서)

□ 추모시

약 속

백 정 민

경화여고 90년 졸업

— 수경아, 내 비록 너와의 짧은 인연이었지만, 허망한 네 죽음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부디 떠돌지 말고 잘 가라. 선배의 시로 네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 보라고 부친다.

고이 잘 가라
흘날리는 꽃상여 없어도
장엄한 진혼곡 울리지 않아도
서럽다 말고
물결 따라 고이 잘 가라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은
무참히도 허리를 잘리어
반쫓가리 교과서를 들고
내리누르는 저 높은 대학을 향해
땅에 버려진 지가지우
성적표에 가위눌리고
인격마저 유린된 채
예쁘게 치장한 감옥에서
숨 못 쉬고 헉헉거리는
죄수를 낳았다

내리는 비도 어느새 울음이 되어
네 얼굴 닮은 하얀 뺨가루 적시는데

어른들이 그럴싸하게 붙여 준
꿈 많은 여고생의
꿇어진 숨결을 향해
죄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진다
“낙오자”라고
“성격이 소심하고 강박관념에 시달렸다”는
무책임한 기사로
무표정한 얼굴로

어깨 제치고 웃어라
그것이 나만의 아픔이었냐고

벗이여, 고이 잘 가라
터질 듯한 울음을
조국의 건강한 허리 가진 그날까지
네 죽음 헛되지 않는 그날까지
꼭꼭 눌러 참겠다.

('90년 「위령제 자료집」)

추모 외 2편

김정성

경화여고 92년도 졸업

—무엇을 추모해야합니까? 이리도 빈자리가 허전한 것을 다짐
해야지요. 한 사람의 빈자리를 수십 수백이 채워갈 것이라는
걸

1. 그날 젊은 녀으로

자보를 쓰면서 '고 김수경학우 추모제'
어쩔 수 없이 또 눈시울이 뜨거워 진다
우리를 가두고만 있던 철문을 속 시원히
녹여 버리지도 못하고 떠나온
눈부신 빛만을
숨막히도록 열기만을 내뿜던 햇볕 가득하던
학교 운동장이 흰하게 눈에 보인다
이젠 '그날' 이라고 하는
'그날' 이라고 하면 알아먹는
그날.
전교조를 지지했던 게 죄가 되면
법정에서도 뗏뗏이 죄값을 받겠다던 언니를
품어 보지도 못한 채
민족 민주 인간화교육 힘차게 불러 주지도
못한 채 땅을 치며 통곡할 수밖에 없던 그날
아직도 나는 죄인이다

언니를 맘 편히 보내지 못하고
언니가 맘 놓고 떠나지는 더욱 못하고
아마 언니는 하늘로 나는 꿈을 꾀을 게다
봄을 땅으로 날리면서조차
언니 죽음이 왜곡되지 않는 곳
학교다운 학교가 있는 곳
엄마 아빠에게 자랑스러운 딸이 될 수 있는 곳
그곳 하늘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 땅에 세워야 한다
우리 손으로 우리의 젊은 녀를 꼭
꼭 지켜야 한다.

2. 그날 붉은 녀으로

병상일지를 읽으면서
느껴 보지도 못한
너의 살 썩는 냄새가 코에 와 박힌다
물을 달라고 괴로와 하던
꺼매진 얼굴도 눈에 와 박힌다

타다 만 유서에서
가슴 메어지는 참세상의 열망을 박아 넣고
힘겹게 녹음된 그 목소리로
정국을 분노케한 음성에서
변하지 않을 너의 신념을 나눠 가져 본다
너를 보내던 그날은
장대 같은 비가 내렸다지
불 붙은 몸으로도
혼자서 곳곳이 가마 하던 그 길을
이제
우리가 가련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 노래 듣고 싶어 하던
널 기억하며
우리 꼭
그 길을 가련다
너의 5월 붉은 가슴을
6월 피빛 녀을
우리 꼭 지켜내마
결코 뺏기지 않으마

3. 지금 서로의 아픔을 함께 하면서

또 다시 6월입니다
하늘을 질러 머리꼭지에 내려앉는
강한 햇볕을 닫고 일어서야지요
그칠 것 같지 않게 선 땅에 와 박히는
굵은 빗줄기로 서로의 아픔을 이겨내야지요
생각만큼 쉽지도 않네요
아픈 상처는 또 왜 그리도 속속들이 파고드는지
하지만 먼저 우리 고통을 떠맡고 간 그들이
이제는 아파 말고 모두의 걸음으로 나아가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목숨으로 사랑했던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
여러 힘 없는 이들에게
또 우리의 힘을 확신했던
바로 그들에게
사랑한다 말하고 싶습니다.

('92년 「2주기 추모집」)

아린 상처 후엔 더욱 단단한 살이 돋는다는데

1.
아픔을 아픔으로만
있게 하는 건
우리의 잘못입니다.
언니를
아직도 슬픔과 좌절로 기억하는 건
우리가 큰 죄를 짓는 겁니다.

2.
초여름의 선선한 밤,
달을 진
교복차림의 아이들 어깨가
꽉꽉 눌러 있지만
그 눌린 어깨 아래엔
새 아침을 준비하는
당찬 힘이
고여 있음이 보입니다.

바뀐 입시제도로
학부모는 더 이상 학교를 믿지 않습니다.
바뀐 입시귀신에
이젠 선생님들마저 발목 채였습니다.
바뀐 입시제도로
아이들의 사고가 보다 과학적인가 하면

더 많은 참고서와
더 다양한 학원강의를 찾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살맛나는 학교
아이들이 주인되는 학교
교사도 인간답게 양심교육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멀지 않았음을

그래도
우린 꼭 믿습니다.

결국 아이들의 힘으로
선생님들의 땀과 눈물로
어머니들의 사랑으로
아이들이 당당히 삶의 주인이 되고
선생님들이 자신의 자리에 옮겨 서게 될 것을
그것이 우리의 힘임을 믿습니다.

3.

해마다 유월이면
몸살을 앓는 학교가 있습니다.
오목하게 자리한

분지의 땅, 대구에

사뭇 잊고도 지내고
억지로 생각 앓고도 지내다가
해마다 6월이면
쨍쨍하게 여름 해가 살이 오를 때
열심히 가슴 앓는 학교가 있습니다.

누군 머리가 멍해지고
누구는 몸서리치며 괴로와 하고
누구는 가슴이 답답하게 차오르고
아무튼
조금씩 다른 아픔으로
누구나 몸살을 앓습니다.

아직은 용서 받지 못할 사람들이
뻥뻥스레 그 자리를 지키고 섰지만
그 분들도
언니에게 아픔만을 던져 준
그 사람들도
엎디어 백배 사죄할 시간이
빠득빠득 다가옵니다.

아마

이미 그들 속에
두려움이 커다랗게 자리하는지도 모릅니다.
용서 받지 못할 일을
저지른 이들이
매번 그래왔듯이
올해도 변함없이
그 학교 위에도
살 오른 초여름 해가 뜹니다.

어수룩한 어둠 타고
살아오는 언니가 보입니다.
언니가 웃고 있습니다.

4.
그날로부터
3년입니다.

그 만한 시간이면
아무리 큰 상처도
하늘이 꺼질 만치 큰 아픔도
또 다른 힘으로
가슴 속에 움트기 마련입니다.

비 온 후에 땅이 굳고

상처 후에 새 살이 돋는다는데

이제
우리
상처를 이기고
새채비에 서둘러야 합니다.
이제
우리
슬픔을 확 걷어내고
새살 돋는
벽찬 기쁨을
함께 합시다.
언니를
기쁨으로 맞아주세요.
새롭게 태어 납시다.

5.
우리의 만남이 서로에게 고통뿐으로 끝나는 법은 결코 없습니
다.
새롭게 나는 힘은 벌써부터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학교에서 쫓겨 나신 선생님들 더 늦기 전에 아이들 곁에 돌아
오시고.
항상 밝은 웃음이 가득한 삶터로 학교를 일구어야지요.
수경이 언니! 사랑합니다! (1993)

수경이 언니가 떠나버린 세상에는

— 언니가 우리 곁을 떠난 지 두 해가 되는 오늘, 더 이상 언니의 죽음을 왜곡시키지 않습니다. 천만 학우의 합성으로 고이 잠드소서…….

언니가 떠나가던 날 우리는
굳게 닫혀진 교문을 사이에 두고
짧은 추모식만을 남긴 채
'내 죽음이 왜곡되지나 말았으면…….'
이 짧은 몇 마디를 던진 채
언니의 영혼은 멀어지기만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언니를 보낼 수 없었기에
언니를 사랑했던 친구들, 선생님들은
언니가 가는 길 앞에 쓰러졌고
뜨거운 햇살과 함께 굵은 눈물로
언니를 떠나보냈습니다.

언니의 죽음이 성적비관 자살이라
떠들어대던 사람들은
아직 그들의 자리에서 언니를 다시는
떠올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허나, 언니는 우리들 가슴 속에 살아 숨쉬기에

편히 눈감는 그날까지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지금 비록 언니의 죽음이
우리들의 가슴을 쓰리게 할지라도
우리 슬픔에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참교육의 등불'로 뜨거운 사랑으로
활활 피어오르소서.

당신은 이제 먼 나라로 간 새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친구로
언제나 함께 전진할 것을 믿습니다.

('92년 2주기 추모집)



지금은 우리가 서로의 상처를 확인하는 때

최진열

전 경화여고 교사·추모사업회 준비위원장

수경아!

그렇게 갔구나. 그렇게 훌쩍 먼 곳으로 가 버렸구나. 무엇이 너를 19살 싱싱하고 꽃다운 젊음을 미련 없이 떨쳐 버리고 그 어둡고 괴로운 죽음의 길로 데려갔느냐?

지난날 나는 보았다. 언제나 유쾌한 말로, 건강한 웃음으로 친구들을 너살 좋게 대하는 네 마음의 넉넉함을. 그러나 지난날 나는 보았다. 우리가 없는 빈 자리를 애써표내지 않고 억울하고 힘든 일 꼭꼭 눌러 참으며, 그래도 씩씩하게 웃으며 친구들을 하나로 이끌어내던 너의 강함을.

언젠가 너는 나에게 물었다. “선생님, 선생님은 선택하신 길이 지금은 비록 인정 받지 못하고 있지만 선생님은 진정으로 그 길을 선택함에 있어 역사에 앞에 떳떳할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너의 갑작스럽고 놀라운 물음에 나는 힘 있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때 너는 빙그레 나에게 너의 그 건강한 웃음을 다시 한번 보여 주었다.

그러나 나는 진정으로 보지 못했구나. 너의 그 건강한 웃음 뒤에 깔린 너만의 아픔을. 너의 고민들이, 너의 아픔들이 그래서 급기야 너에게 죽음이라는 큰 결단을 내리게 한 너만의 상처들이 그토록 쌓여 나갈 동안 네가 그렇게 좋아해 주었던 나는, 아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가. 4층에서 네가 먼 곳으로 갈 차비를 하고 애써 눈물을 감추며 허공으로 뛰어내릴 때, 자꾸만 떠오르는 부모님과 그렇게 좋아해 주었던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가.

수경아, 나의 수경아.

죽음은 끝이다. 그래서 더욱더 가슴이 저며오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저 햇살을, 저 내리는 비를, 저 아름답게 피어 있는 들판의 꽃을 네가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 가슴 아프구나.

그러나 슬픔이 슬픔만으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너의 죽음이 죽음으로서 끝나 버리고 네가 정신병자 아닌 정신병자가 되어 그 먼 길로 가 버린다면 이 땅에는 또다시 얼마나 많은 피맺힘과 눈물들이 뿌려지겠니? 얼마나 많은 젊음들이 피를 흘리게 되겠니?

수경아,

네가 죽음으로써 뿌리고 다져놓은 아픔이라는 토양 위에서 자라나는 많은 이 땅의 세대들에게 우리는 연약한 콩나물이 아니라 튼튼하고 강한 콩나무로 자라날 수 있는 참교육의 물을 뿌려 줄 것이다. 더 이상의 아픔도, 더 이상의 죽음도 이제는 용서하지 못한다.

네가 그렇게 우려하며 네 죽음을 왜곡하지 말라고 당부했던 것처럼 세상은 너무나 무서운 속도로 네 죽음을 왜곡하고 있다. 그 어떠한 사람이라도 이제 더 이상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너의 죽음을, 네 젊음의 보상을 참교육의 외침으로 일어서고 있는 우리는 이 땅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우리는 꼭 갚아 주리라. 고개를 돌리고 외면하는 저들도, 너의 죽음에 눈물 아닌 눈물을 보이는 저들도, 우리가 이 벽을 깨고 일어서는 그날, 진심으로 너의 죽음 앞에 애도하며 통곡하리라.

수경아,

먼 길 떠나 지금도 그 어디선가 쉼 곳을 찾지 못해 떠돌고 있을 수경아. 너의 꽃다운 젊음의 희생 위에 더 이상의 눈물을 뿌리지 않으며, 이 내리쬐는 햇살을 더 이상 네가 볼 수 없음을 울지 않으며.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 내가 없는 집에 너는 요즈음 한창 선전되고 있는 트라이 내의를 사놓았더구나. 그리고 다음날 전화로 “그래, 넉넉하다”하며 함께 웃었을 때의 네 건강하고 정말 넉넉한 목소리가 마지막이 될 줄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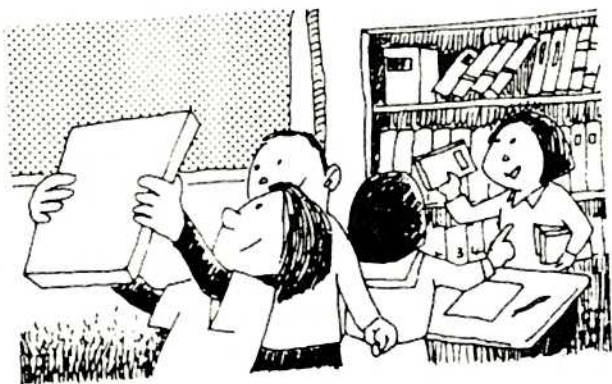
이 땅에 주렁주렁 콩을 단 콩나무가 쑥쑥 자라날 때 그날에

우리는. 네가 그렇게도 좋아하고 자랑스러워했던 우리는 기쁨에. 감격스러움에 또다시 너를 생각하며 큰 눈물을 흘릴 것이다.

수경아.
이 땅에 더 이상 죽음과 아픔들이 사라지고 자유롭게 웃고 애기 나눌 수 있는 그날에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어 서로 얼싸안으며 만나자꾸나. 부디 그 먼 길, 외로운 길 방향하지 말고 네 영혼이 하느님 곁에서 편히 쉬기를 우리 모두 기도한다.

참교육 2년(1990년) 6월 9일

지금도 눈앞에 네 모습을 그리며



수경이를 생각하며

최미향

전 경화여고 교사

1990년 6월 5일 저녁 9시경, 최진열 선생님으로부터 다급한 목소리의 전화를 받았다. 수경이가 혹시 오지 않았느냐는……. 오지 않았다고 고3이나 된 아이가 어디 놀다 가는 모양인데 뭘 그리 걱정하느냐고 오히려 편잔을 놓았다. 그로부터 몇 시간이 흘렀던가. 6월 6일 아침. 그 뜨거운 여름 태양이 열을 더해 갈 무렵, 수경이의 죽음을 전해 들었다. 영대 병원으로 달려가면서도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19살 소녀가 얼마나 극한 상황에 처하면 죽음을 생각할 수 있을지 상상이 되지 않았다.

누구에게나 죽음은 두려운 것을…….

나는 수경이를 직접 가르친 적도, 또 둘이 앉아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눠 본 적도 없었다. 솔직히 말하면 수경이가 학급 실장이라는 것도 몰랐었다. 다만 교무실 복도에서 자주 마주쳤고, 그럴 때면 항상 씩씩한 목소리로 인사를 하곤 해서 낮익은—그리고 활발한 여학생이라는 정도로만 알았다. 그러다가 경화여고에 교직원노조 분회가 결성되면서 우리들은 학교측과 심한 대립을 보이게 되고, 분회장 징계위원회가 열리면서 징계저지운동에 들어갔다. 리본 달기, 단식 수업 등을 강행할 때 늘 최진열 선생님을 염려하여 석수를 준비하는 등 도우기 시작했다. 매일 저녁 하교 길에 우리가 모여 농성하고 있던 교무실로 친구들과 찾아와 노래를 불러 주고 가곤 했다. 그때 우리들에게 그 노래는 크나큰 위안과 격려가 되었다. (1,2학년이 가고 나면 밤 10시 고3들이 교무실 복도에 내려와 '스승의 은혜'를 불러 주고 집으로 갔다. 그 노래로 그 지리한 밤들을 견딜 수 있었다.) 그 당

시 수경이와 나와 의 대화가 크게 없었지만, 그 아이는 전교조에 관해, 그리고 참교육 운동에 관해 관심이 많은 걸로 보였으며, 우리들에 대한 애정이 무척 깊다고 느꼈다. 수경이는 당시 학급 실장으로 학생들이 취했던 시험 거부나 교사징계 저지에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취했다고 전해 들었다.

그리고 개학 후 우리가 출근 투쟁을 할 때 달힌 교문을 사이에 두고 '스승의 은혜'를 불러 주던 모습을 아직도 기억한다. 그 후 수경이는 우리와 관계되는 곳에는 늘 모습을 보였다. 참교육 장터, 참교육 문화행사, 그리고 서달서구지회 사무실로 사 용한 책방 「아이들 사랑」…….

참, 잊을 수 없는 일이었다.

해직되고 몇 달 후 가을 바람에 낙엽이 떨어질 때였다. 아침에 등교하는 학생들을 보고 나니 얼마나 울적해지던지, 시들해 있는 나에게 전화가 왔다. 학생회 간부 몇 명이 우리집에 놀러 온다고 했다. 오래간만에 아이들을 만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설레었다. 땀에는 아이들을 위해 저녁밥을 넉넉히 짓고—아이들의 식욕은 굉장했었다—장을 봤다. 된장, 콩나물, 시금치, 김, 아이들이 좋아할 성실했 반찬을 여러 가지 준비했다. '그래도' 하는 마음에 고등어도 두 마리나 샀다. (더 좋은 생선을 사고 싶었으나 자제했다. 그때는 고등어가 엄청 싼 생선이었으니까). 이만하면 내가 생각해도 푸짐한 저녁상이었다. 다 먹고 상을 치우던 나는 아뿔사! 신경 써 구워 놓은 고등어 자반은 아직도 후라이팬에 압전히 놓여 있는 것이었다. "애들아, 내 정신 좀 봐!" 이후 수경이는 나만 보면 "그 고등어 아직도 있나요?"라며 농담을 하곤 했다.

학생회 간부들이라 식사 후 자연스럽게 학생회 이야기로 화제가 바뀌었다. 그 자리에 수경이도 있었는데, 학생회가 자치 활동을 할 수 없는 불만을 표현했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아이들 모두 학생회가 잘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물론 수경이도 그러했었다. 아마도 학급 실장을 하면서, 그리고 학생회 간부로 활동하며 누구보다 학생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절히 느꼈던 것이리라.

어쩌면 나는 수경이의 여러 면 중에서 한 부분밖에 보지 못했

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아주 상세하게 잘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아직도 나는 수경이의 웃음을 잊지 못한다. 어쩐지 쩡그린 듯한 표정 속에 가득 담고 있던 웃음, 개구장이 같기도 하고, 선머슴에 같기도 하고……. 씩씩하고 활기찬 모습들, 그 모습 그대로 수경이는 언제나 내 마음 속에, 참교육의 함성과 함께 영원히 우리 곁에 살아 있으리라.



수경이 앞에 죄인된 모든 교사에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지난 5일 대구 경화여고 김수경양의 투신자살은 그동안의 성적비판 학생들의 자살이 가져다 준 슬픔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통한의 슬픔을 우리 조합원교사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전교조의 합법성 쟁취를 위해, 부당한 해직을 철회하기 위해 함께 싸웠던 그 어린 학생이, 우리가 떠나고 당했을 그 무수한 협박과 탄압, 구타를 이겨내지 못하고 목숨을 끊어야 했으니, 아! 진정 수경이 이 학생을 다시 어디서 찾고 어디서 만나 손을 힘껏 잡아 줄 수 있단 말인가?

결코 수경이는 자살이 아닙니다. 이는 명백히 악덕교사 서진교가 자행한 살해행위이며, 아이들을 빨갱이년이라 욕설하며 온갖 핍박을 서슴지 않았던 경화여고 교장, 교감, 학생주임 등 모든 교사가 공모한 살해행위입니다. 이러한 현상의 가리개를 몇 겹 벗기면 본질적으로 교육을 소수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노예교육으로 전락시켰던 현 정권이 학생의 인권은 아랑곳없이 '지도'라는 명목 아래 김수경을 처참히 살해하였던 것입니다.

제2의 김수경이는 없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제2의 김수경이가 생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하면 됩니까? 전교조를 합법화하면 됩니까? 노태우가 퇴진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뿐이라면 그것을 외치는 것으로 우리의 할 일이 끝나는 것이라면 그것은 기만입니다. 전교조를 위해 진정 학생들을 악용하는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수경이의 죽음에 있어서 우리의 책임은 없습니까? 성적비판의

자살학생에 있어서 우리의 책임은 없었던 것입니까? 잘라서 말하건데 저는 수경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 조합원 동지들이 자신을 반성할 점이 있다고 봅니다.

1천5백 명의 해직교사가 학교를 떠난 후에 선생님 지키기 운동에 열심히 동참했고 스스로의 자주적 삶을 지켜내고자 했던 수십만 명의 학생들이 학교에 남아 있습니다. 그 중 다섯 명의 학생이 구속을 당해 재판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아야 했고, 10여 명의 학생들이 퇴학을 당했으며 수백 명의 학생들이 무기정학 및 유기정학 등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학생들은 고립되어 있으며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위축된 현장 교사들이 그들을 만나기를 꺼려하고 해고된 선생님들은 그들 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트라이 내의를 해직된 담임 선생님께 선물하며 "선생님 힘 내세요."라고 위로로 게을리 하지 않았던 김수경, 그러나 우리 조합원 동지들은 힘들어 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랑스런 제자들을 얼마나 위로하였던가요? 해직의 아픔은 우리 자신만의 문제라며 최일선에서 고통 당하는 학생들의 아픔은 머리 속 어디엔가 관념의 창고에나 처박아 놓지는 않았던가요?

문득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과연 수경이가 현장 선생님 또는 해고 선생님과 그 아픔을 함께 나누었다라면, 어려운 학교 현실에서 그것을 뚫고 나갈 방도와 전망을 함께 고민하는 선생님이 있었더라면 영남대 인문관 4층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수경이에게 가해지는 모진 학생탄압이 있었기 이전에 수경이는 해직에게도 현장에게도 심지어는 그 부모님에게도 버려져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가요?

이것은 결코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제자인 수경이를 찢어지는 가슴으로 서럽게 보내면서 우리 모든 조합원 동지와 뼈저린 아픔과 반성을 공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많은 학생들이 전교조 싸움은 이미 끝난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는 이미 그 싸움은 그들과 상관없는 것인양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해직교사들을 바라보는 자세는 동정심과 비슷한 수준의 연민이 주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주교사가 쫓겨나고 폭력교사가 탄압

을 하는 현실을 도무지 수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이미 끝난 싸움앞에 그저 분통한 심정으로 외로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간혹 해직교사를 만나더라도 연민 어린 위로와 환한 웃는 얼굴을 보일지언정 그들의 탄압 받는 속사정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밖에 계신 분들에게까지 자신들의 우울한 이야기를 털어 놓아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더욱 힘들게 할 수는 없는 까닭입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과연 이게 타당한 이야기입니까? 학생들과 우리들이 벌써 남이 되어 버린, 각기 제 길을 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 버렸다는 말씀입니까? 트라이 내의를 사주던 그 환한 수경이가 어째서, 무엇 때문에 그토록 힘든 사정들을 말하지 못하고 "편안하십니까? 넉넉하십니까?"와 같은 선전문구로 화제를 다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고작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죽고 나서야 선생님에게 전달되도록 한 편지가 전부였던 말입니까? 누가 만든 현실인가요? 정말 복받쳐 오르는 이 설움과 원통함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모든 현실이, 자신이 너무도 안타깝고 또 괴롭습니다. 우리가 해직당하면서 끝끝내 사수한 전교조의 깃발이 한 제자의 생명도 지킬 수 없었던 말입니까? 옥중에서 고통스레 1년을 보내신 우리 위원장 동지의 그 고생의 결과가 바로 이것이었단 말입니까?

조합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해직의 길을 선택했었던가요? 무엇보다도 지금의 현실은 교단 위에서의 가르침보다 교단 아래서의 가르침이 더 소중한 시대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 아니었던가요! 교단 위에서의 가르침은 박탈 당할지언정 교단 아래서의 가르침은 포기할 수 없기 때문 아니었던가요. 그렇습니다. 교단 위에서의 가르침이 형식이요, 프로그램이며 직접 만남이라면, 교단 아래서의 가르침은 생활이요, 지·정·의의 전인적 만남입니다. 교단 위에서만 스승이요, 교단 아래서는 남남이 되는 관계가 아닌 교단 위 아래 할 것 없이 항상 스승이고자 해직의 길을 택하지 않았던가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엇입니까? 과연 한 달에 몇 번이나 학생들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들의 아픈 사연에 귀를 기울이고 같이 걱정하며 절망을 함께 고민합니까? 학생들이 이리도 죽어가는데 학생들과 만나면 오해받을 것이 두려워 계속 피해야 합니까? 우리는 참교육을 부르짖을 뿐 아니라 참교육을 실천해야 합니다. 정녕 우

리, 수경이를 보내며 약속을 합시다.

자유로운 그 날, 죽음과 아픔들이 사라지는 날, 우리 다시 만나자. "늘 감상적인 약속보다도, 너의 원수를 갚겠노라."는 약속보다도 이제 학생들을 방치하지 않겠노라고, 학생들과 생활 속에서 교사가 아닌 친구로써 —그래서 진정 스승으로써 함께 살아가겠노라고 약속을 합시다. 그래서 빛도 없이 방향 없이 어둠 속에서 신음하다 마지막의 항거로 자살을 택하는 우리 제자가 없도록, 너희들과 함께 싸우는 너의 선생이 함께 있음을 그들에게 보여 줍시다. 머리는 교과를 연구하고 입은 참교육, 노래를 부르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몸은 항상 사랑하는 제자와 함께 있도록 합시다. 진정 우리 조직의 합법성은 저 간악한 정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며, 일회적인 선거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학생들로부터 오는 것임을 잊지 맙시다.

존경하는 전국의 조합원 동지 여러분, 우리 사랑스런 수경이는 가지 않았습시다. 여기 우리가 가르치던 학교의 학생들 속에 같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정녕 눈물로, 뜨거운 가슴으로 품어 안아야 할 수경이가 있습니다. 우리! 수경이를 만납시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참교육 2년(1990년) 6월 18일



수경아! 항상 난 너를 생각하고 사랑한다

김 숙 경

김수경 열사 언니

사실 나의 글솜씨로는 책에서 나의 글을 남이 읽어 줄 그런 솜씨가 아니지만 너의 1주기를 기념하고 너를 생각해 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에서 조그마한 도움이 되리라 믿고 이렇게 몇 자 적어 보려 한다.

1990년 6월 5일 내가 불운한 세상을 등지고 하늘나라로 떠난 날이다.

새벽 3시경 파출소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허겁지겁 옷을 챙겨 입고 급하게 파출소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너는 없었고 경찰관들이 몇 명 앉아 있을 뿐이었다. 수경이는 어디있느냐는 나의 질문에 대답을 뒤로 하곤 그냥 잘 있다는 말뿐 이것저것 질문만 했다. 그때까지 난 조금은 불안한 생각이 들긴 했지만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수경이는 운명을 달리 했다."는 어느 경찰관이 불쑥 던지는 한 마디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하고 배신감과 함께 미쳐 버릴 것만 같았고 엄마는 잠시 정신을 잃으셨다.

급히 차를 돌려 영안실로 향하면서도 엄마, 아빠, 그리고 나는 우리 수경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일 것이고, 잘못 알았을 거라고 믿으려 했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그럴 수가 없었다. 이미 주민등록증이나 유서를 보고 난 뒤에 영안실로 향했기에 나의 마음 속으로 그렇게 믿고 싶었을뿐이지 일이 잘못될 수는 없었다.

도착해서도 난 너를 볼 수가 없었다. 보고 싶다고 매달리는 나에게 아빠는 만류를 하셨고 아버지 혼자만 너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나오시는 아버지의 눈에 형언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고, 우리 식구들은 부둥켜 안고 울 수밖에 없었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네가 눈을 뜨고 있어서 아빠가 감겨 주었다고 한다. 꿈도 많았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던 너였기에 그렇게 떠나려니 눈이 감겨지지 않았던 것 같다.

평소 때도 고3이라 아침 일찍 학교에 가고 저녁 늦게 돌아오기 때문에 한 방을 쓰면서도 얼굴 한 번 제대로 볼 수가 없었고, 네 고민이 어떤 것인지도 몰랐다. 철두철미한 성격으로 남에게 지는 걸 죽기보다 싫어 했고, 공부도 항상 1등만 하기를 바랐고, 모든 일에도 언제나 최고이기를 바랐고 노력해 왔었다. 친구 관계도 원만했고 인기도 좋았다. 거의 매일 도착하는 친구의 카드나 편지며 걸려오는 전화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는 동안 줄곧 성적은 상위권이었고 상장만으로도 방안을 메울 정도로 가득했고 피아노, 글쓰기, 미술 등 못하는 것이 없었고 반을 이끌어 가는 실장으로 학교일에 뛰어 들기를 원했고 잘 이끌어왔다. 친구의 고민이나 걱정을 들어주고 상담도 해주는 그런 일에서부터 학교일에 몸을 담아서 일하기까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했고 한 번 한다면 끝까지 하고 마는 성격으로 모든 이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면서 성장해왔다.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네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무수한 기억들이 스치고 지나가는 듯하다.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다투기도 많이 다투어도 돌아보면 다 아픈 추억으로 남아 있지만 지금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네가 우리 곁을 떠나기 이틀 전 엄마가 사 오신 스웨터를 가지고 서로 입으려고 싸우다 먼저 지친 내가 양보 아닌 양보를 하고 난 뒤 그 옷을 입고 좋아서 텔레비전 앞에 앉아 중얼중얼 노래하는 모습이 떠오른다. 물론 떠나는 날까지 그 옷을 입고 떠났다. 아마도 이런 일을 예감했는지 내가 쉽게 그 옷을 양보했으니 말이다.

지금 우리 곁에 살아 있지만 한다면 아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더라도 우리 곁에 있다면 그까짓 옷이 아니라 내 모든 걸 양보하고 다 줄 것만 같은데, 이렇게 19년이란 짧은 생애를 살고 가려고 이 죄 많은 세상에 태어났단 말인가! 대학가서 자신의 꿈을 펼쳐 보겠다고 여태까지 공부한 것도 아깝고, 너의 이상을

한 번 펴 보지도 못하고 이 사회와 어른들을 미워하며 먼저 간 것이 마음이 아프다.

언제부터인지 활발하던 네가 집에서도 말이 없어졌고 잘 먹지도 않았고 자꾸 살이 빠지는 것 같았다. 집에선 고3이니 공부하느라 힘들어서 그러려니 하고 너에겐 말을 안했지만 신경을 곤두세웠었다. 그때가 바로 전교조 활동으로 인해 담임선생님이 바뀌는 과도기였던 것 같다. 네가 좋아하고 따르던 선생님이 해직교사가 되고 보니 반의 실장인 너는, 다른 친구들보다 그 선생님을 더 따르고 좋아했었지. 담임 선생님 해직으로 아파하고 갈등하는 너에게 새로 들어온 담임 선생님은 어떻게 대했던가? 다만 우리 수경이가 그동안 얼마나 마음 고생을 했고 어린 나이에 “학교를 잘 부탁한다. 공부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달라.”는 유서 1장을 남기고 세상을 등졌다면 그동안의 학교생활이 어떠했으리라는 것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하지만 너는 이젠 외롭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는 여러분들이 있고, 잊지 않고 추모하는 뜻으로 책 발간까지 힘 써 주시니 말이다.

마지막으로 너의 언니로서, 책을 내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너에게 “보고 싶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 주고 싶다.

“수경아! 항상 난 너를 생각하고 사랑한다.”
그리고 너의 영혼이 이젠 떠돌지 말고 편히 쉬길 진정으로 빌며, 다시 한 번 “미치도록 보고 싶다.”를 쓴다.

(1991)



우리의 친구 수경이

김 명 은

경화여고 91년 졸업

우연스레 '가위 바위 보'로 짝이 되었다는 것이 그 애와의 첫 만남이었다.

여느 아이들처럼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다른 아이들이 모두 자리를 한번 정도는 바꾸었지만 아이들의 눈치에도 불구하고 우린 장장 1년을 함께 지냈었다.

2학년에서의 첫소풍……

유난히 흥겨운 음악소리에 자기판에는 반아이들의 사기를 올려 주려고 서툰 몸놀림으로 디스코도 추어 반애들에게 함께 놀 수 있게 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리더쉽도 십분 발휘했었다. 또, 난 노래를 못하기 때문에 음악 실기시간이면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뛰는데 수경이는 유난히 노래를 잘 불러 친구들의 부러움을 받곤 했었다. 어떤 땐 수업시간에 잠깐 속삭이다 꾸중을 듣기도 하지만 금새 잊어버리곤 방긋이 마주 본다.

이렇듯 좋은 시간은 그렇게 빨리 흘러 버리고 커다란 시련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가슴 아프게도 사랑하는 담임선생님을 잃고서 두 차례나 선생님이 바뀌어 새생활에 적응하려고 무척 애쓰는 너의 모습이 가련해 보이기도 했다. 결국 두 왕을 섬기는 신하의 모습이었지만 마음은 늘 한쪽편인 것이다.

때론 웃고 때론 한탄도 하며 늘 웃고 그저 소신대로 말은 일 잘 해내는 우유부단하지 않은 모습으로 잘 견디기도 했으나 허리의 잦은 통증으로 나의 손은 안마에 재능 있는 움직임으로 바

빠졌다. 때론 허리가 아프다며 비가 올 것 같더니 정말 그말이 맞아 나는 처녀 짐쟁이라 놀리기도 했었지.

시간은 흘러 우린 3학년이 되었지.

수경인 모르긴 해도 아마 정치외교학을 공부하고 싶어 했고 또 열심히 공부했으나 잦은 허리의 통증으로 괴로와 했다. 하지만 여전히 활달했고 우리에게 재치 있는 이야기로 인기도 있었고 또 후배에게도 모범적인 언니로 항상 건강했다.

그런데, 그저 농담으로만 들던 그 말 속에 가시가 있었을 줄이야.

날더러 자기 죽거든 검은 상복 입고 오라고 하길래 난 검은 옷이 없다고 하니 그럼 하얀 옷이라도 입고 오라며 웃고, 또 자기가 가진 것 중에 무엇이 제일 갖고 싶냐 하길래 난 철 없이 무엇이라고 대답하며 웃고…….

3학년이 되어 좋아하는 선생님도 생겼으나 수경이의 친한 친구가 그 선생님을 무척이나 좋아하는 까닭에 자기는 내색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애를 도와 주기도 했었지…….

지금 생각하면 이런 수경이에게 무척 미안하고 지금도 내 곁에 있을지 모르는 수경이를 그리며 편안한 세상으로 갔을 것이라 확신하며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부끄러운 이 눈물을 너의 긴 안식에 바친다.



되살아온 수경이를 위해

장미정

경화여고 90년 졸업

경화여고!

말도 많고 탈도 많게 3년을 보냈던 곳. 그 곳에서 보낸 3년이란 시간들은 그 몇십 배가 되는 나머지 시간들을 살아 가면서 두고두고 힘이 되고 어떤 기준이 될 가치관을 세울 수 있게 한 것이었다. 좋은 친구들과 좋은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었고, 내 머리가 굵어지며 나만의 문제에서 벗어나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의식의 토대가 마련된 정겹고 따뜻한 곳으로만 기억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가졌던 집회와 해직되신 선생님들, 그리고 수경이의 아픔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비가 오는 운동장에서 보충수업, 자율학습의 폐지를 외치며 쫓겨가는 친구들을 보며 느꼈던 동질감, 선생님들의 단식을 보며 가졌던 안타까움, 뒤이은 선생님들의 해직, 출근투쟁을 하시는 선생님들을 교문 창살 사이로 바라보며 모의고사를 치르던 날, 체육선생님의 부릅뜬 눈앞에서 '선생님 힘내세요'만 나직히 외치면서 되돌아섰던 힘겨웠던 기억들이 떠오른다. 그러나 이제와 돌이켜 보면 쓰리고 아팠던 기억보다는 열심히 살았다는 뿌듯함이 더 큰 것은 추억으로만 되돌아보기 때문일까?

졸업식날까지 데모하는 학교로 찍혀 학교의 명예에 막대한 손상을 입혔다고, 게다가 대학진학율도 개교 이래 최저라며 우리의 앞날을 축복해 주는건지 악담하는건지 모를 교장선생님의 말씀들을 뒤로 하며 그저 가슴 후련해 했었다. 그리고 새로운 대학 생활에 빠져들어 졸업하면 땡인 그저그런 선배가 되어가고 있었

다.

한창 놀기 좋아하던 1학년 때, 어느때 처럼 학교에 놀러갔다
가 수경이의 죽음을 알았을 때, 텅텅한 웃음과 밝은 얼굴의 수
경이가 떠올라 당황스러웠다.

수경이를 처음 만났던 고3 때, 방학을 하면 그 틈에 선생님들
이 해직되실 것 같아 전학년이 기말고사를 무기한 연기하며 집
회를 할 때였다. 후배들은 학사일정이 늦어지면 3학년들은 대학
도 못간다는 선생님들의 걱정(?)을 듣고는 우리들을 무척 걱정
해 주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할게요. 언니들은 시험치세요."하
던 수경이의 말이 참 고맙게 느껴졌었다. 그러던 녀석이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하나 믿을 수가 없었다.

생활의 장이 달라졌다고 그 때의 절실했던 마음을 잊고 고교
운동은 그 부문에 있는 사람들이 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만 하
고 있었다.

다른 것은 다 채쳐두고서라도 남의 괴로움은 기꺼이 들어 주
며 생활에서도 모범을 보이려 했던 수경이 옆에 방패가 되어 줄
선생님이라도 계셨으면 마음 터놓을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 너무나없이 가지게 되는 죄책감.

경화여고를 항의방문 했을 때 제자를 정신병자로 매도하고,
항의방문한 졸업생들에게 사진 찍어 공개하겠다고, 데모하는 애
들은 왜 하나같이 호박들이냐며 비웃으시는 선생님들 앞에서 분
노보다도 이런 속에서 수경이가, 그리고 후배들이 살고 있구나
하는 안타까움이 더 컸다.

수경이의 장례식을 준비하며 처음엔 그저 어린 것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불쌍한 것, 하는 측은한 마음이 앞섰지만 1주기,
2주기를 준비하면서 새록새록 솟아나는 것은 이대로 수경이의
죽음을 묻어 둘 순 없으며 동문회에서 추모회나 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수경이의 죽음을 고등학생 운동의 부분으로 자리매김해
야겠다는 생각이었다.

수경이의 죽음과 사회적 의미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한 고등학생이 자
신의 생각을 주장하고 실현하고자 노력하다가 좌절되어 끝내는
죽음의 방법을 택했다. 수경이의 죽음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 -
비록 그 부분이 많은 적든 간에- 를 잘 이끌어내어 올바르게

알리고 이어받는 것이 남아 있는 사람들의 할 일이다. 열악한
고등학교의 현실 속에서 자주적 학생회의 건설을 위해, 참교육
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다. 수경이의 죽음을 올바르게 자
리매김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는 것이며 다시는
수경이와 같은 불행한 아이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다.

해가 바뀌게 되면 그리고 봄이 오고 6월이 다가오면 수경이
생각을 하게 되고, 지난 1년간 무얼 하며 살았나 생각하게 된
다.

"내가 의미 없이 보낸 오늘이 어제 죽어간 동지가 그토록 살
고 싶어 했을 내일이었으리라!" 라는 말이 있다.

열사가 많은 5월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열렬히 살고자 했던
수경이를 떠올리며 잘 살아야지 하는 결심을 새삼스럽게 해 본
다.

요즘같이 4학년이 되어 취업 준비에 정신이 없다 보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일단 나 하나 잘되고 보자는 이기심이 문득문
득 고개를 들곤 한다. 그러나 그런 이기심을 잠재우고 나의 동
료에게, 이웃에게, 그리고 사회의 모든 사람들을 돌아보며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세상에 '똑바로 서야 한다는 다짐으로 스스
로를 추스린다.

수경이가 우리 곁을 떠난 지도 벌써 3년이 되었다. 수경이의
3주기를 준비하며 이제까지 무엇 하나 제대로 해 놓은 게 없
다는 생각에 미안해 하면서 이제 좀 장기적이고 목적적인 행사를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스무 해도 못되는 짧은 세월을 살다 간 수경이, 그러나 수경
이가 남긴 수많은 의미들, 영원히 살아 있을 그 정신.

3주기를 맞아하면서 이제 추모제의 형식도 보다 발전적인 단
계로 전환되어야 하겠다. 언제까지고 상처로, 아픔으로만 수경
이를 기억하기 보다는 우리들 사이에서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되살아나야 할 것이다.

튼튼히 뿌리 내린 학원자주화 속에서, 그리고 참교육의 함성
이 커진 교실에서 수경이는 부활해야 한다.